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3 1982년 8월 1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ugust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1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토론토를 진동시킨 교민제전

제2회 체육대회 성료

1위 천주, 2위 벧엘교회, 3위 번영회

20대 초반의 정기섭군과 50대노장신석회씨의 씨름 대결을 마지막으로 제2회 캐나다교민 전국체육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4일 상오9시 이토비콕의 센테니얼·팍 메인·스타디엄에서 화려한 입장식으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5색풍선이 파란 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8·15 광복절 기념식등을 마치고 태권도 시범을 선두로 개막됐다.

밤9시33분 22개 단체가 참석한 모든 경기가 끝날때까지 약 3~4천명의 교민들이 관람, 지금까지의 한인사회 행사중 가장 많은 교민이 참석한 행사기록을 세웠다.

주최자인 캐나다대한체육회지부(회장 이병권)는 흰 유니폼을 입은 30여명의 임원을 동원, 이날 행사를 시종 질서있게 진행시켰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종목에 출전, 선수층이 두꺼운 천주교회팀은 초반부터 단연 선두를 달려 전년도 우승팀인 베델교회팀을 70점차로 누르고 215점을 얻어 우승했다.

새로 맞춘 유니폼을 입고 입장상을 차지, 초반부터 열을 올린 코리아타운번영회는 전년도우승팀 베델교회의 저력에는 힘이 달려 5점차로 아깝게 3위에 머물렀다. 체육대회후 같은 장소에서 가지려던 배삼룡등의 연예인쇼가 없어졌으나 복권추첨을 끝으로 휘날레를 장식할 때까지 1천여명 교민들이 스탠드를 메웠다.

이번 대회에 더욱 의의를 준 것은 런던축구팀의 분전. 예년과 같이 토론토대표팀이 우승하리라고 예상했으나 개인기와 팀워크가 뛰어난 런던팀이 압도적으로 우세, 토론토지역 공동우승자인 한인장로교회를 누르고 올라온 모나미팀을 6:2로 물리쳤다.

체전의 꽃인 마라톤서는 전년도 우승자 장광휘 선수가 2등 장용문군을 거의 1km, 5분여의 간격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번 마라톤코스는 7km가 채 못됐고 작년처럼 심판원들의 시간체크에 미스가 있었다. 30여명의 주자들은 4백m 경기장을 3번 돌았고 운동장밖 스키장주위를 4번 돌았다. 작년과 달리 여성주자가 없었으나 대신 어린이선수 2명이 끝까지 완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위해 총영사관서 5천달러, 외환은행서 3천5백달러를 기증했고, 서울여행사와·신세계여행사가 서울왕복비행기표 1장씩, 학생신분으로 여름방학을 이용, 대영백과사전을 파는 총영씨가 사전 1질을 내놓았다.

경기전적및 개인별 시상은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 천주교회 215점
2위 베델교회 145점
3위 번영회 140점

입장상 번영회
응원상 베델교회
장려상 동부장로·한인장로
감투상 대한교회
공로패 정세용,이영현
감사패 최동주,장기철,장추신

◆축구
OB전 우승 동부장로
준우승 번영회
청소년우승 런던선발
2위 모나미
3위 한인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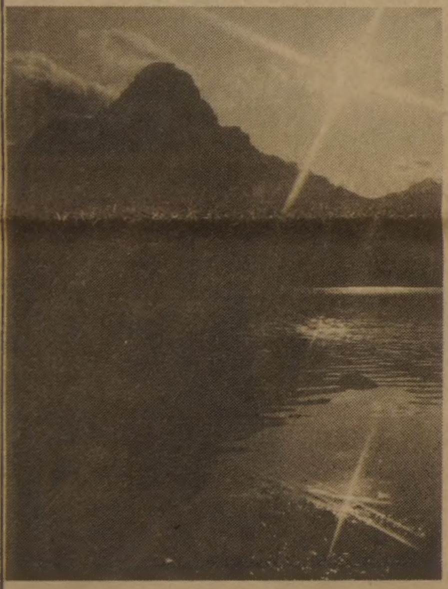
◆마라톤
1등 장광휘(한인장로)
2등 장용문(중앙)
3등 김준영(천주교)
4등 최완규(번영회)
5등 최건영(번영회)
6등 정일용(동부장로)
감투상 조현석·유영제 (어린이부)

◆씨름
장사 석남일(모나미)
2등 정기섭(")
3등 신석회
유영곤
노인장사 이도화·김성준
(공동우승)

◆기념식후 5색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사 고〉

록키산으로 여러분을



◆촬영: 이기성(사진협회 임원)

지난 7월13~18일까지 교포사진작가 5명이 북미의 절경 록키산을 다녀왔다.

사진작가들의 필름에 담은 밴프, 자스퍼등의 절경들이 슬라이드와 사진을 통해 비쳐진다.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교민들의 참석을 바라며 작가들의 여행담 해설도 곁들인다. 입장료는 없음.

일시: 8월20일 7시30분
장소: 삼우스튜디오(58 Wade Ave: 537-7630)

주최 : 사진협회 후원 : 한국일보사

"대망의 태평양시대 이룩"

전대통령, 캐나다등 순방길 올라

(서울16일=연합)전두환대통령이 15일간의 캐나다및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을 위해 16일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이날 출국성명에서 전대통령은 "캐나다는 「대망의 태평양시대」를 향해 함께 나갈 소중하고 강력한 우방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프리카 순방 또한 새 시대 전개를 위한 상당한 기여가 이룩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및 캐나다 방문 서 전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과 상호 협력 증진등 쌍무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그는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제안한 태평양 정상회담에 관해 피에르·트루도수상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아프리카국가 지도자들과는 천연자원 합동개발및 기술교환문제등 경제협력확대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대통령은 또한 순방국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휘 상공장관, 김준성 경제기획원차관과 부인 이순자여사를 비롯한 18명의 수행원을 대동한 전대통령의 순방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순방국〉	〈지도자명〉
8월17~19일	케냐	다니엘·아랍·모아대통령
8월19~22일	나이지리아	알하지·쉐부·샤가리대통령
8월22~24일	가봉	엘·하지·오마르·봉고"
8월24~26일	세네갈	아부·디오프대통령
8월28~31일	캐나다	트루도수상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광복절 기념특사

김상현씨등 1,286명

(서울14일=연합)한국정부는 광복절 제37주년을 맞아 전 국회의원 김상현씨·시인 고은씨를 비롯한 복역수 1,286명을 특별사면키로 결정했다.

이진휘문공장관은 14일 이번 특사가 수감자들에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로 35명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208명의 미성년수감자를 비롯한 1,251명의 모범수를 가출옥시켰다.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사람들은 고은, 김상현씨외에 김대중사건 관련자 1명과 80년 광주사건 관련자 4명및 28명의 계엄령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이다.

체코침공 14주년 시청서 기념행사

토론토에 본부를 둔 국제반공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against Communism)는 소련의 체코 침공(68년) 14주년을 맞아 20일(금) 토론토시청광장(Nathan Phillips Square)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날 하오7시부터 1시간 동안 음악연주에 이어 체코국기가 시청옥상에 게양되며 정부관리, 이민족 대표들의 소련규탄 연설등이 있다.

반공위원회는 한인교포들의 많은 참가를 요망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6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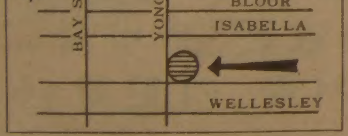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반돔 화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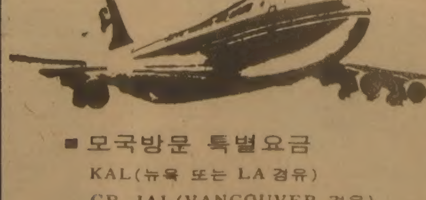
江戸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이전개업인사
의사 왕운린
(카나다의사면허와 미국 미시건주 의사면허 소유)
금번 8월3일부터 600 SHERBOURNE ST. (at Bloor St.)의 ROSEDALE MEDICAL CENTRE 402호에 이전 개업 하였읍니다.
⊙건강상담, 종합진찰,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X-레이, 심전도 울트라사운드검사, 산전 산후건강관리및 분만, 소아건강, 가족계획 상담등.
※ Doctor's Hospital Active Staff Member로서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 응급및 중환자분은 Doctor's Hospital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 월~금 : 오전 10~오후 7시, 토 : 오전 11~오후 3시
☎ : (B)968-1543 (R)363-9196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옥중 이철수씨와의 전화인터뷰

"정말 나는 결백하다"

30세 생일바라는 선물은 무죄
이번만은 법원 정의 실현을 기도

▲ 이철수씨.

"생일다가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생일선물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빨리 밖에 나가서 저를 위해 애써주신 교포들을 찾아뵙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5일로 만30세 생일을 맞는 이철수씨가 12일 본보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철수씨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교도소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무언가 밝은 빛이 비치는것 같다."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LA지사)

그는 『지난 1974년 처음 재판에서 종신형 언도때와는 내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될 때는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마음이 쏠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1일 그와 동갑내기인 LA 이철수후원회의 패티·장양의 면회를 통해 『LA동포들이 만든 생일카드를 받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또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절대로 차이나타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다시 강조한 이철수씨는 『내가 감추고 있는 어떠한 사실도 없으며 감출 필요도 없다』고 억양을 높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실책을 은폐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사인 스튜어드·헨톤과 토니·세라씨등이 『진실한 조력자』라고 밝히고, 이 변호사들과 함께 수고하는 교포 추수남, 일본계 랑끄·야마다와 다마끼변호사등은 『희생적인 봉사자』라고 감사했다.

약 30분간 전화통화중에서 이철수씨는 『이번 재판에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들과 증거를 위해 남모르게 수고한 사설탐정인 힐·홈슨씨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나를 위해 방청하고 있는 교포들, 특히 노인동포들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 이철수씨는 『동포애가 이렇게 뜨거운 줄을 몰랐다』면서 울먹였다.

9년의 세월을 감옥 담안에서 보낸 이철수씨는 『이번만은 미국사법제도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기원－상항 수피리얼코트앞에서 열린 지난9일의 이철수씨 지지시위. 2백50여명의 이지역교포들이 참가했다.

한국, 북한에 5:3패

아시아청소년축구

(싱가폴)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12일 열린 제23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동부예선 준결승전의 남북대결에서 북한에 5대3으로 패했다.

청소년축구로는 사상 세번째 남북대결인 이날 대결에서 한국은 전반에 2대2의 팽팽한 대결을 벌였으나 후반 북한의 파상공격에 밀려 2골차로 분패했다.

가족낚시대회
경희대동문회 주최

토론토의 경희대학동문회(회장 차원봉)는 오는 21일(토) 상오11시 Bellwood Conservation Park에서 가족동반 바베큐 야유회겸 낚시대회를 실시한다.

신부 우편주문

필리핀여성·호주남성

필리핀의 신부감을 오스트레일리아의 독신남성과 중매하는 소위 「우편주문 신부」 소개업이 양국간에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1천5백여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펜팔식의 소개과정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남성과 결혼했다.

중매업자들은 신문광고나 구두선전을 통해 신부감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비는 최저 20달러에

"가난한 나라 떠나고싶어"
소개비 $20서 최고 $2천

서 시작하여 신부감과의 비데오테이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최고 2천달러에까지 이르고 있다.

레오·마틴(61)이라는 직장에서 은퇴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은 필리핀여인 소개업소에 85달러를 내고 신부감들의 사진과 간단한 이력서를 받았다.

학교선생인 오로라·이바네스(31) 여인을 신부감으로 선택한 그는 편지왕래를 한지 1년만에 비행기로 마닐라를 직접 방문, 이바네스를 처음 만났다. 1주일 후 그들은 결혼했다.

신부감들의 경력은 대학졸업자, 버려진 아내, 술집 여인등 다양하지만 누구나 필리핀을 떠나고 싶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여인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우편주문 결혼에 응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반해 오스트레일리아 남성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호주남성들은 대개 별로 사교적이지 못한 수줍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편주문 결혼을 바라고 있다.

우편주문 결혼은 최근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퀸스랜드의 한 남자는 필리핀 여자와 우편주문 결혼을 한 다음 거액의 생명보험을 타내기 위해 그녀를 살해했다.

우편주문 결혼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알콜문제와 신부보다 훨씬 많은 신랑의 나이등이 결혼생활에서 필리핀 신부가 고통받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 신부들은 남편에게 두드려 맞거나 사실상 죄수처럼 집에 감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남자가 신부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남자나 여자쪽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조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은 개인생활에 정부가 깊이 관여할 수 없다며, 그다지 강경한 자세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록키의 Edith Cavell 산 휠터 : red filter
카메라 : Sinar 4 × 5, 필름 : plus － X

한국교회의 문제점 1

김 낙 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누구나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취되어 〈제2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서울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조차도 열 손가락으로 꼽고도 남을 문제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분석가(?)의 신앙과 양심과 상식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열거된다. 이 글도 많은 다른 대답들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글은 첫째로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로는 이민교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란 신앙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목표로 한다.

사람들에게는 진단은 심각하게 하고 처방은 쉽게 내리는 버릇이 있다. "나라의 기둥이 썩어가는데 화랑 정신은 어디로 갔노?"라고 누가 외쳤다고 치자. 과연 나라의 기둥이 썩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화랑정신을 부르짖어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4.19혁명과 5.16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중한 진단에 어울리지 않는 경한 처방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 글은 또 하나의 과오에 불과할 뿐이다. 진단에 머무르고 말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자가 치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방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기를 거부한다면 금연의 비결이 무슨 소용에 닿으랴? 병자가 진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건강함을 고집한다면 의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꼭 한마디,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읍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자.

지난 수년간 교포지에 소개된 교회 비판의 소리중에서 교회를 떠난 자의 변명과, 교역자의 설교 수첩에서 발췌한 〈나의 제언〉을 빼고 나면 두분의 글이 남는다. 한분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학자로서 비학술적인 비판에 종사했고, 한분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긴장된 교회의 양극성 중에서 한편을 파괴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어쨌거나, 비판이나 파괴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예수의 사업의 일부는 어느 특정한 전통과 기정사실의 비판과 파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은 두분의 비판과 파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활자화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언어를 채택했기 때문이리라.

한국 사회의 최근세사속에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현상에 대해서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리 잃은 양을 버려두고 울안의 살찐 아흔 아홉마리 양을 돌보는" 목자의 철학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비밀은 한마리만이 울안에 머물고 아흔아홉마리의 입주가 거부된 사실에 있다. 그래서 임의로 그린 동그라미 밖에 있는 땅이 교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팽창은 부정적 현상이 아니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사람은 어디에?

서독에 살고 있는 교포 유경자씨가 지난 68년 캐나다로 이민온 친구 배기선씨(남편 석민수)씨를 찾고 있다.

이들의 거처를 아는 분은 (416)863-0415(유좌석)로 연락바라고 있다.

21일 리치몬드서 한맘골프대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은 제7회 회원골프대회를 21일(토) 하오1시 리치몬드골프장에서 갖는다.

56명의 참가자중 여자골퍼는 8명이다. 시합에는 윈터룰(겨울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계 주한미군 2명
$90만상당 밀반입 적발
군사우편통해 시계·비데오등

(서울14일=연합)한국은 13일 90여만달러 상당의 일제상품을 밀반입하려던 두명의 한국계 주한미군을 적발 미관계당국에 통보했다.

미군측은 이 두병사가 제2보병사단 사령부 소속인 인·H·김과 제8인사사령부 소속인 칠·U·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른 주한미군의 부인과 두명의 한국인과 결탁, 미군수송기를 이용한 군사우편(APO)을 통해 전자계산기, 시계, 녹음기, 비데오등을 들여오려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들이 모두 1만5천여달러의 세금을 포탈하려는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이상의 징역과 포탈하려던 세금의 5~10배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1

전경수 (사진협회 회장)

◆전경수씨

여행이란 원래 즐거운 법이지만, 특히 사진하는 사람들에겐 촬영만을 위한 여행만큼 신나는 일은 없다.

산다운 산을 별로 볼 수 없는 동부지방에 살며, 먼듯한 평지에 진력이 난 사진협회 회원들이 오래전부터 록키산 원정을 벌러오다 금년에야 용단을 내고 떠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여러날 출타할 수 있는 회원은 얼마 안되어, 결국 다섯명이 다녀오게 되었지만, 차라리 행동하기에는 인원이 많은 편보다 간편했다.

막 시작되는 7월의 무더위를 등지고, 토론토를 떠나 캘가리 비행장에 도착하니, 고원지대가 되어선지, 더위라곤 별로 느낄 수 없었다.

시내에서 하루 묵으며 앞주일분의 식량과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세낸 캠퍼를 몰고 Banff를 향해 일로 서쪽으로 달린다.

캘가리에서도 록키산은 80마일길,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저 멀리 지평선 위에 나란히 솟구쳐 손짓해 부르듯이 기다리고 있다. 록키는 미국 남부까지 뻗어 내려가는 북미 최대의 산맥으로, 동서를 가르는 분수령이자 북미의 지붕이기도 하다.

눈앞에 다가서는 산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일행은 작은 흥분과 기대에 들뜬다.

첫번 모퉁이를 돌아 깎아세운 듯한 높은 산이 나타나고, 그 밑에 고요한 호수가 펼쳐지자, 차를 세우고 예란 듯이 모두들 뛰어내려 정신 없이 샤터를 눌러댄다. 손이 빠른 Y씨는 선자리에서 필름 한개를 눈깜짝할 사이에 없애곤 벌써 새것으로 갈아 넣는다. 앞으로 전개될, 숨막힐 절

깎아세운듯한 높은산
아래엔 고요한 호수

경들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곳은 아마 그대로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흐린 날씨에 이미 해가 진 뒤이고, 광선의 변화도 없어 작품의 대상으로 부적당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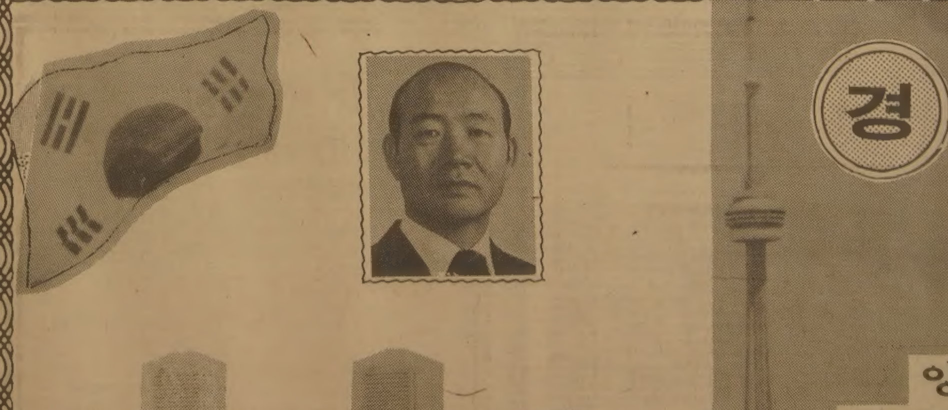
Banff 국립공원 안의 유일한 관광타운인 Banff 근처엔 캠프장이 만원이어서 시설이 없는 간이캠프장에서 첫날밤을 지내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였다. 운이 나쁘게 계속 날씨가 청명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공기중의 수분과 고산지대의 자외선 때문에 원경은 선명치 못해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가 반짝 나는 틈을 이용해 재빨리 촬영하곤 하였으나 록키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이 변했다. 때아닌 눈발까지 휘날려, 멋모르고 두터운 옷도 안입은채 케이블카를 타고 산정에 올라갔을 때엔 모두들 추위에 떨었다.

록키는 원시 그대로의 험악하고 광대한 지역이어서 길이 나지 않은 곳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일주일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잘 닦여진 Banff와 Jasper간의 하이웨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절묘한 풍경이 연속되는 이 길은 2백마일도 채 못되어 지금엔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지만, 하이웨이가 건설되기 전엔 이곳을 통과하는데 빨라야 2주가 걸렸다 한다.

우리는 사잇길로 드나들며 하루에 불과 30마일을 전진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며, 일주일을 이 길 위에서 헤맨 셈이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광막한 지대 안에 실오라기 하나 위를 왔다갔다한 셈밖에 되지 않는다.



경 축

양국의 정상회담이 양국의 발전과 상호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변함없는 우방국으로서 알찬 회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한인무역인협회 회장 이 영현 및
회원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체육대회

14일 센테니알·팍

화보

교민의 함성 토론토서역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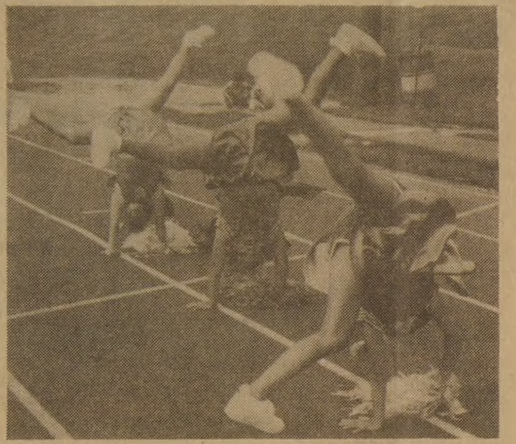
남녀노소 3천명 우의 다져

(1)

촬영 : 김명선사진협회 임원

◆영광의 수상팀들. 왼쪽부터 3등 장순채 코리아타운번영회장, 1등 김운고 천주교회회장, 2등 벧엘교회팀, 강윤모 천주교체육부장이 우승기를 들고 있다.

◆"영차! 영차!" 해병대팀 대 번영회와의 줄다리기. 앞서부터 4번째에 고종옥신부.



◆벧엘교회 응원단의 한 모습.

◆ 부모들의 경주

◆캐나다쇠고기로 다져진 정기섭군에게 50대의 씨름선수 신"장사"가 넘어가고 있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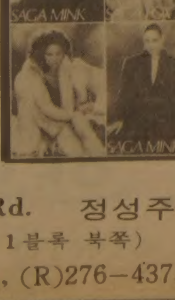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영어·수학·한국어
학생모집

9월 새 학기에 5~6학년되는 학생 약간명 모집. (지난 학년에 학교성적이 에버레지 이상인 학생에 한함)

— 개 강 —
9월11일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30분

— 과 목 —
Crative writting, Comprehension Vocabulary Development, Gramer, Korean, Math : (Problem Solbing)

— 장 소 —
GEORGE BROWN COLLEGE
(Casa Loma Campus) 160 Kendle Ave.

— 교사진 —
John Yoon(B. A., M. ED.) 현직교사
Mark Sok(B. A., 현 성공회 신부)

※학부형들을 위한 Open House가 9월4일(토)에 있겠읍니다. 더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1429 Malibou Terr. Mississauga Ont. L53 KB9 ☎ : 822-5735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문: 저희 가족은 한국사람이 별로 없는 작은 마을로 최근 이민와서 이곳 교회에 다니고 있읍니다. 교인들이 모두 친절히 대해주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저희 식구를 아이들과 함께 「Family Style」 저녁식사에 초대했읍니다. 대강 어떤 종류의 식사인지는 짐작이 가지만 「Family Style」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패사디나 Mr.박〉

●답: 「family style」식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초대한 쪽이나 초대받은 쪽 모두 자기집에서 식사를 하듯이 편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식탁을 준비할때 안주인이 도움을 청할수도 있고 도와주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앉는 자리는 특별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부모가 돌봐줄 수 있도록 옆자리에 앉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가장 가까운 접시부터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은후 옆사람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때 미국식이 한국식과 다른점은 첫째 음식의 가지수는 적지만 충분한 양이 마련돼 있으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둘째 여러가지 음식을 덜어놓았던 접시가 완전히 다 비워지면 더 먹겠다는 뜻이므로 안주인이 음식을 더 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식사가 끝났으면 거절해야지요.

세째 터키요리등 특별한 음식이나 큰 쟁반에 담긴 요리가 아닌이상 남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는 일이 없읍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부모가 직접 요리를 덜어주기도 하지만 부탁을 받지않고 다른 사람이 음식을 놓아주는 것은 실례입니다.

결국 미국식사의 기본개념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기자신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읍니다.

FAMILY STYLE식사…

형식에 별로 구애안받아

○문: 8세때 이민온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저의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미국에 이주했는데 부모님이 바빠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아저씨는 전화국직원에게나 또는 DMV에서 차량을 등록할때 너무 저자세로 나갑니다. 아저씨는 카운터나 책상 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웃으며 굽신거립니다. 저는 아저씨의 행동이 촌사람이 하는 행동같아 아주 못마땅합니다.

여기가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행동하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샌디에고 철이〉

●답: 미국사람이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행동을 외국인의 행동으로 여기지 결코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귀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아저씨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귀하가 약간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느끼는것은 당연하지요.

저는 귀하에게 참으라고 권하고 싶읍니다. 그의 한국식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 이민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을 못받지는 않으며 오히려 형식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약간 매력적일 수도 있읍니다.

저의 경우에도 약간 어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되면 새로 미국에 온 사람이라고 여겨져 더 친근한 감정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귀하의 아저씨도 곧 미국식행동에 익숙해질것입니다. 그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오래지않아 그도 이중문화에 익숙해져 미국사람을 만날때는 미국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돌아왔을때 저자신이 관료들에게 이상하게 행동했고, 때로는 머리를 끄떡인다거나 굽신거린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런행동이 없어지고,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 다른 미국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읍니다.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 ⑥

이 태 준(문협회원)

이어 관리인의 방문이 열리고, 반바지만 입은 고릴라같이 생긴 사내가 나타나 무뚝뚝한 목소리로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3층 7호실에 사는 김노인을 보신 적이 있읍니까?"

"그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코리아타운에서 놀다 저녁 늦게 돌아오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인데, 이틀동안이나 연락이 안돼서 찾아 왔읍니다."

"혹시 아파트안에 있을지도 모르니 올라가 보시죠?"

"이미 가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때, 지팡이를 짚고도 걸음을 잘 못걷는 노파가 관리인에게 다가와,

"내방의 번호수를 또 잊어 버렸어?"

알아듣기 힘든 허끄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5층 17호실이요. 5층 17호실. 나갈때마다 잊어버리면서 왜 나가?"

고릴라같이 생긴 관리인은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쏘아 붙였으나, 노파는 알아들었는지 못알아들었는지, "땡큐"를 남기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 갔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노인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풍기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코리아타운에 나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여인은 현관을 빠져나와 코리아타운쪽으로 걸어가 한양식당부터 먼저 들렀다.

식당주인 권절식이 식사손님인 줄 알고 생글생글 웃으며,

"어서오십시오. 이쪽이 시원합니다."

하고 자리부터 권했다.

여인은 망설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쭈러 왔읍니다. 저의 아버님이 와계신가 하고요."

"어느분이신데요?"

"김노인이라고요. 아래 노인아파트로 오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어요?"

"아! 한국재씨가 아까 말씀하시던 분이군요. 글쎄, 꼭 점심은 여기와서 드셨는데, 며칠간은 뵈옵지 못했읍니다. 동남아한약방에 들러보세요. 한국재씨하고는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거기에 들르셨는지 모르니까요."

그 무렵, 동남아한약방 주인 한국재는 삼십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여자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읍니까?"

비과학적이라는 어유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한약에 대해 선입감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약의 우수성, 양약에 비해 습관성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장광설을 늘어 놓은 다음, 한국재는 서서히 본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젊은 여자손님은 머뭇머뭇 망설이며 얼굴을 붉힐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젊은 여자들이 한약방에 찾아와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대개 세가지로 분류된다. 처녀의 경우 임신했을때, 유산을 원할때, 부인일때는 자궁병이나, 성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다. 한국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결혼은 하셨지요?"

서서히 유도해 갈 작정으로 넌지시 물었다.

"그럼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국재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는 성의 불만때문에 온 여자라는 것을 넘겨 짚으며, 눈치채지 않게 안색을 살폈다.

성적불만을 오래 느끼고 있는 여자는 눈주위가 붙그레하고, 눈물이 고여 있다.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우수에 잠기기도 한다.

한국재는 여자의 눈이 젖어 있고, 얼굴피부가 꺼칠한 것을 확인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재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자손님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하는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한국재를 바라보았다.

"하늘과 땅이 있고, 물과 불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읍니다. 이 음과 양이 잘 조화되어 나갈때 삼라만상의 운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결합이 원만할 때,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손님은 심한 성적결함으로 시달리고 있읍니다."

한국재는 여기서 말을 끊고, "그렇지요"하는 시선으로 여자손님을 바라다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신통하세요" 여자가 남자를 신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자를 조종하기는 여반장(　　)이다. 한국재의 몇 마디에 감동한 여자는 수치심으로 열지 못하고 있던 마음을 활짝 열고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민온 후로는 한번도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남편 때문입니까? 부인자신 때문입니까?"

"저에게는 별 이상이 없는 것같은데, 아빠가 너무 허약해진 것같아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씩 요구하면 1분도 못돼서 땀만 비오듯이 쏟고, 흐물흐물 시들어 버려요"

"알겠읍니다. 그 정도면 제 보약 한재로 끝날 것입니다."

한국재는 자신있게 대답하고, 숙달된 솜씨로 화재를 적어가기 시작했다.

"그이 때문에 병원에도 갔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별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현상이라고 그러대요."

"그 사람들은 모르면 신경성 병이라고 하고, 알면 아스피린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음양의 이치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계 속〉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花의 사나이

〈49〉

殺意의 斷層 ⑯

칼을 산 그녀는 불안에 떨며 주위를…

청년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지만 묻자는 그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내가 그렇게 특이하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청년은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말인가요?』

그녀는 청년을 보지 않고 물었다.

『상당히 멋져 보이십니다.』

그녀는 손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았다.

『이거 얼마예요?』

그녀는 칼날을 접어 넣었다.

『미제라 좀 비쌉니다. 남자에게 줄 선물로는 아주 제격이죠. 날이 상한다거나 녹이 슬 염려도 없고…』

『알았으니까 값을 말해보세요.』

그녀는 정면을 보이지 않은채 냉랭히 말했다.

『에…5만원만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칼을 내려놓으면서

『3만원이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겠어요.』

하고 말했다.

『5천원만 더 쓰세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문쪽으로 돌아섰다.

『가져가세요.』

그녀는 3만원을 지불하고 나이프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을

朴 男 그림

청년이 쳐다봤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칼을 손안에 꼭 쥐고 걸었다. 너무 꼭 쥐고 걸었기 때문에 손바닥에 땀이 축축히 배었다. 걷다 말고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칼잡은 손을 쳐다보았다.

『내가 칼은 왜 샀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그녀가 내부에서 대답했다. 그녀는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것만 같았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지?』

『그야…그야마…모세란놈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녀는 급히 걸어갔다.

『거짓말 하지마! 다 알고 있어! 그런 놈은 죽여야해!』

『사람을 죽여서는 안돼. 아무리 악마라고 하지만…』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김승만도 못한놈이란 말이야! 갈갈이 찢어죽여도 시원찮은 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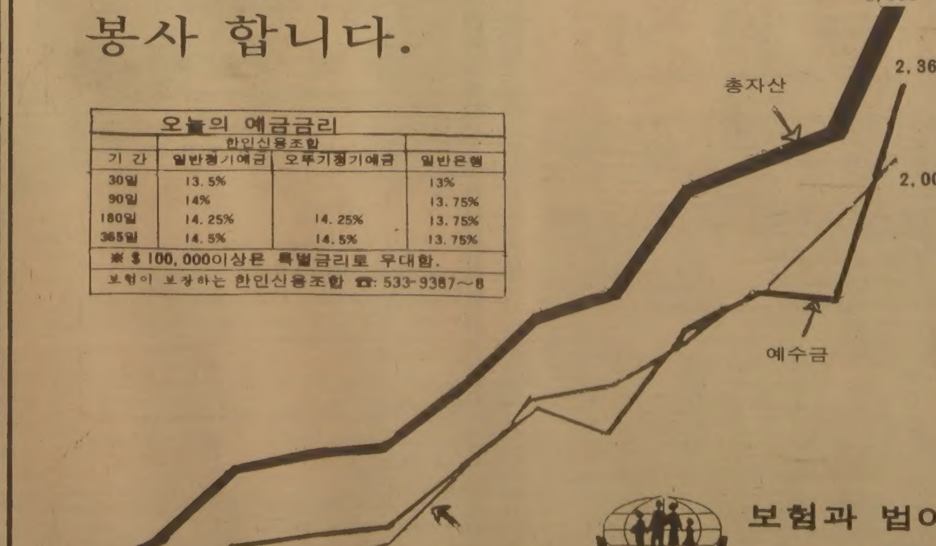
『안돼.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놈을 죽일 수 없어. 연약한 여자가 그런 강철같은 사내를 어떻게죽여.』

『넌 그놈을 죽일 수 있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머리만 잘 쓰면 그놈을 죽일 수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달이 이자를 올려받는 정기예금** 을 이세상에서 보셨읍니까?

$ 2,800,000 을 **달성한**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또 하나의 신종예금 **"오뚜기 정기예금"** 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교민 여러분께 봉사 합니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1. 명 칭 :

오뚜기 정기예금

(VARIABLE TERM DEPOSIT)

2. 특징과 혜 택 :

①은행 우대금리(BANK PRIME RATE)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를 올려서 받게됨.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당시의 이자율보다 내려가지 않음.
②이자는 매월말에 정기적으로 받음.
③기한은 6개월 · 1년 두가지.
④중도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보통예금 금리(현행 12%) 보장

3. 권장대상 :

①수시로 오르는 금리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고자 하시는 분.
②교회 · 단체의 기금, 장기성 예금등.
③특수목적을 위하여 이자의 별도적립을 원하시는 분. (모국방문 · 성지순례등)
④목돈의 예치로서 월정 용돈, 생계비를 얻고자 하시는분.

4. 기 타 :

어느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부하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CAR LOAN, MORTGAGE LOAN도 곧 시작합니다.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 533-9387, 938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歪曲시정」誠意보여라"

外務部、日公使불러 거듭 促求
"時間끌면 2단계 對應"

정부는 12일하오 日本의역사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是正을 거듭촉구했다。외무부의 崔東鎭 亞洲국장은 이날 고또오(後藤利夫)駐韓일본공사를외무부로 불러지난3일 우리정부가 교과서 歪曲시정을 강력히요구한 備忘錄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날현재까지 아무런 회답을 해오지 않은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끌수록국민감정이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해결이 한층어렵게 된다』고 일본측의 보다성의있는 是正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崔국장은 이어 일본정부가 冷却期를 두고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는점을 지적하면서『전반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고또오공사는『한국정부의 입장을 즉각 本國에 보고하겠다』면서『이싯점까지 일본정부가 확실한 회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정부에서 제반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또『일본정부가 냉각기를두고 해결하려한다는일부보도가있었지만 결코그건 자세가아니다』고 설명한후『일본정부는 양국간의우호를위해『어떻게해서라도 하루빨리교과서문제를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는 것으로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날1시간동안계속된요담에는 우리측에서 李在春北亞1과장、일본측에선 야나이(柳井俊二)공사가 각각 배석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관계部處간의 협의를갖고 일본정부가 보다성의있는 조속한是正자세를 취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정부 입장을 다시 전달키로 결론을 내렸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일본이 우리정부의 재차시정촉구에 대해 조만간 대응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리정부의 후속조처는 일본의 담변을 받아본후 결정하게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교과서 歪曲사태로 빚어진 韓日간의 梗塞된관계를 해소하는 열쇠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쥐고 있다』고 강조하고『금명간 일본이 제시해올것으로 예상되는 回答이 앞서와같은 의례적인『한국민의 분노이해』「是正노력」등의 수준이 될 경우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을뿐더러 일본이 이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某種의 제2단계對應策을 강구하게될것』이라고 示唆했다。

◇崔東鎭외무부亞洲국장㊧이고또오(後藤)駐韓공사에게 歪曲시정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는 야나이(柳井)공사。

日政府、오늘談話文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교과서 분쟁을 타개하기위해 성의를 갖고 조기해결에 노력하고있음을 천명하는 내용의 정부 담화를 13일발표할예정이다。

2次面談 거부不拘 日관리 北京안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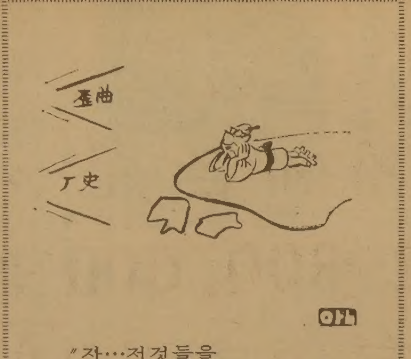
【北京11日AP·AFP=聯合】일본교과서의 왜곡기술로 빚어진 日·中共간의 긴장을 완화하기위해 北京을방문중인 2명의 일본고위관리들은11일 중공관리들과의 2차회담을 거부당했다。

北京소식통들은 이날 2차회담을 거부당한 일본관리들이 하루를허송했으나 12일에는 중공관리들과 면담을가질수있으리라는 기대를갖고 北京출발을연기했다고밝혔다。

臺灣서 5萬참가 日왜곡 抗議서명

【臺北11日AP=聯合】약5만명의 臺灣시민들은 11일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항의하는 대규모서명운동을 벌이고 만약 일본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社会漫評



"자…저것들을 속아넘어가게 해야겠는데…"

"南北赤회담 무조건再開하자"

劉韓赤총재、提議11돌성명
直通電話·어부送還도 촉구

대한적십자사 劉彰順신임총재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제의 1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새로운 마음으로 1천만 離散가족들의 문제를협의해결하기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북한적십자회측에 거듭 촉구했다。

劉총재는 이를위해 북한측이 지난73년 일방적으로 폐쇄한 서울—平壤간 직통전화와 板門店회담연락 사무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것을 북한적십자회에 요구했다。

劉총재는 이날성명에서『한적이 11년전 이날 1천만離散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자는 인도적견지에서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은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 단절의벽을 뚫고 온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부푼 희망을갖게했다』고 회고하고『北韓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은 온민족의 이같은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한적은 그간 회담의 재개를 북한측에 부단히 촉구해왔을 뿐만아니라『「가족사진교환」「성묘방문단교환」「板門店면회소및우편물교환소설치」등을 꾸준히 제의해왔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어느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이제부터라도 쌍방대표가 다시 마주앉아 새로운 마음으로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협의、해결하기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할것』을 북한적십자회측에 촉구했다。

劉총재는 이어 지난7월13일 동해상에서 어로작업중 北韓무장함정에의해 납북된 우리 어선제5馬山號 선원35명이 만 한달이 지나도록 송환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북한적십자회측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입각、우리선원 전원이 하루속히 가족들의품으로 돌아올수있도록 앞장서 줄것』을 요구했다。

劉총재는 또 제5馬山號선원뿐만아니라 1954년이래 북한측이 불법적으로 납치、이시각까지 강제로 북한지역에 억류하고있는 우리어부 4백6명이 조속히 송환될수있도록 적극 협조해줄것을 北韓적십자회측에 촉구했다。

日妄言취소안하면 韓·日의원聯에不參
국민당소속議員

국민당은 12일 일본정부가 歪曲된 교과서를 시정하지않고 일본각료의 妄言이 취소되지않는한 黨소속의원은 오는 9월열리는 韓·日의원연맹총회에 참석을 거부키로했다。

국민당은 이날상오 당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일본교과서 歪曲사태와 관련、국회外務委를 즉각 소집할것을 거듭요구키로 했다。

당무회의는『최근 일본에서 일고있는 新軍國主義의亡靈이 東北亞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된다고 단정、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결의하고『정부는 민족자주 의식에 입각하여 일본교과서 歪曲시정을위한 보다 적극적인대응책을 강구할것』을촉구했다。

당무회의는 또「7·3조치의 전면실시保留」란 종래의 黨論을 재확인하고 7·3조치와 관련된 공청회개최여부는 앞으로의 추이를보면서 재론키로했으며 이박에 黨정치발전 特委에서 마련한 國政전반에 관한 對政府질문서를 시기가 맞지않다는 이유로 내지않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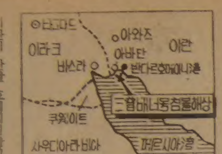
地平線

서울시내에서 길을 건너려면 대체로 육교 아니면 지하도 신세를 져야한다。바라보면 지척인데도 사람들은 구름다리를 오르내리고 지하도를 오르내리는 고역을 치르고 있을때 차량들은 포장된 탄탄대로를 거칠없이 매연을 뿜으며 내노라 하고 오가고 있다。▼길이란 태초로부터 먼저 사람이 오가고 그리고 나머지것들도 내왕케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그런데 서울의 길에서는 사람은 뒷전이 되고 사람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가 주인행세를 한다。육교나 지하도는 도시행정에서 사람을 소외한 발상의 산물이라 할수가있다。▼그래도 사지가 건전한 사람으로는 육교나 지하도를오르내리는 고역을 감내할수가 있겠으나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를 생각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발을 붙이고 산다는것이 기적과같게만 여겨진다。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는 서울의도시계획은 정성과 애정이 매말랐다는 느낌마저 든다。▼더구나 서울은 우리인구의 22·3%가 밀집해서 살고있으며 산업별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도 전국의28·5%를 차지했으며 산업별사업체수는 전국의 45·6%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33·1%에 이른다。우리나라의 심장부이자 행정적인 수도의 기능까지 겸쳤으니 그비중은 절대적이다。▼이렇게 명실이 상부한 국가의 심장부가 적 장거리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일단 유사시 통행의 장애물이 될것이 분명한 육교는 두통거리이다。만약 육교가 내려 앉게 되어 도시기능을 토막내게 될것을 생각하면안절부절한데도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늘어나기만 했다。▼그런데 서울시는 뒤늦게나마 앞으로는 육교나 지하도의신설을 억제하고 보도상의 각종 시설물을 없애는등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도로의 구조를 바꿔 나가리라한다。특히 내년부터는 종로、을지로、세종로구간에서는 육교와 지하도를 없애고 평면통행을하게 한다는 소식이다。▼현재 서울시내에는 1백84군데나되는 육교와 65군데의 지하횡단시설이 있다。지하횡단시설까지는 또 몰라도 적어도 육교는 없애는것이 도시미관을 위해서나 일단 유사시를 감안해서도 현명하다。육교를 없애고 평면통행을 하게하며 보도를 넓히는 것과같은 도시계획의 전환은 지난날 시민소외로부터의 탈피로 평가하고 싶어서 박수를 보낸다。

한국貨物船 被擊침몰

1萬톤級「三普배너」 이란近海서 9명死亡·실종
이란·이라크戰 流彈맞은듯…오늘중 경위·身元 판명

이란의 반달 호메이니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출항한 三普해운 (서울中區 北倉洞21 해남빌딩12층·대표 郭昇國·52) 소속의 우리나라 화물선 삼보배너호 (선장 金成哲·30·9천8백97톤) 가 침몰、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으며 4명이 부상당하고 17명이 구조됐다고 12일 현지공관에서 외무부로 보고해왔다。



부상자와 구조된 선원은 테헤란병원으로 공수돼 치료를 받고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은 12일하오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선원수는 3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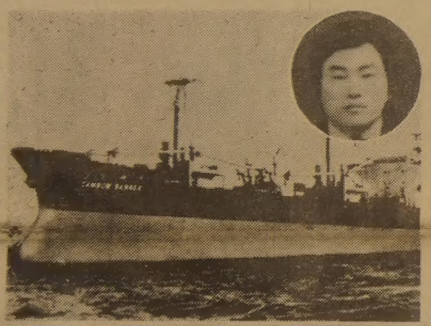
외무부는 테헤란과 사고현지와의 거리가멀어 만하루가 걸리기때문에 13일쯤돼야 정확한 사고경위와 규모、사망자및부상자신원이 파악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삼보배너호는 지난6월10일 부산에서 철강 종이 섬유등 잡화를싣고 출항、반달호메이니항에서 화물을 하역한후 지난9일 하오1시 (한국시간)출항하다 이란-이라크전의 유탄에 피격당한것으로 보인다。

삼보배너호는 반달호메이니항을 출발、사우디아라비아 담만항에서 급유를 받은뒤 호주에가서 일본행화물을 싣고 일본을거쳐 오는9월10일께 부산에 귀항할 예정이었다。

삼보배너호는 三普해운이 보유한 6척의 화물선가운데 포장되지않은 화물을 실어나르는 벌크 (BULK) 선으로 지난68년12월 이탈리아에서 건조됐다。

한편 三普해운주식회사는 11일 하오 3시께 테헤란사무소로부터 텔렉스로 간략한 사고소식을 보고받고 대표 郭씨와 상무 金在燁씨등 2명을 현지로 보내는 한편 부산시 中區 中央洞4街 칼빌딩의 부산사무소에 임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승선자가족에게 사고소식을 알렸다。



◇침몰한「삼보배너」호와 선장 金成哲씨(圓內)。【釜山12日聯合】

預金、出處조사 않기로

利子·株式소득 85년까지 分離課稅
民正、經濟補完策 내주초발표

民正黨은 그동안 黨政협조와 公聽會등을 통해 마련한 6·28및7·3經濟조치 보완책을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黨의 한 소식통은 12일 民正黨의 정책관계 간부들이 지난주 靑瓦臺에 보고한 내용에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하고 13일저녁 열리는 黨政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측과도 최종협의를거친뒤 늦어도 내주초에는 補完策을 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이 보완책으로 검토하고있는 방안은『내년7월부터 實名去來制를 일단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모든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出處를 일체조사하지않고 내년7월이후 實名化하는 예금에대해서는 5%의 課徵金을 물리지않기로 했다。

이방안은 내년7월이후 實名化하지않는 예금에 대해서는 5%의 課徵金과 종합소득세 50%를 效課하도록한정부방안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50%를 적용、實名化를 유도키로했다。

이방안은 또 신규예금、주식거래는 모두 實名化시키되 내년7월이후에도 約定기간이 끝나지않은 정기예금·會社債·産金債등은 약정기간종료때까지 假名또는 無記名을 허용키로했다。

民正黨은 또 예금이자및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合算과세의 전면실시를최소한 實名制가 일반화 되는 86년이후로 연기하고 그동안에는 分離課稅를 병행실시하며 증권거래差益에대한 종합과세도 보류키로 했다。

이방안은 分離과세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5천만원이하의 예금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분리과세대상 액수를 점차 축소하여 종합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아울러 民正黨은 종합소득稅率 조정에있어 현재 6~60%로 되어있는 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稅制개편안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되어있다는 점에서 최저세율을 6%도 인하하는 한편 17단계로 되어있는 세율구조를 축소하고 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PLO司令部 카이로에 設置

【니코시아11日AP=聯合】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할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새로운 사령부는 카이로에설치될것이나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은 다마스커스나 튀니스에 본거지를 둘것이라고 사에브·살람 전레바논수상이 11일 말했다。

美·이스라엘·PLO간 협상의 중요중재자중 한사람인 살람전수상은 이날 레바논우익 팔랑해黨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檢察 대규모人事

서울地檢 第1次長 朴鍾喆 第2次長 金炯杓 第3次長 黃吉秀
검사現人員의 55%…2백명

정부는 12일 서울지검제1차장에 朴鍾喆 서울지검형사1부장、제2차장에 金炯杓 대검감찰과장、제3차장에 黃吉秀 서울지검형사4부장을 승진발령하는등 고등검찰관승진33명、전보82명、검찰관전보85명등 모두 2백명(검사현원의 54·6%)에 대한 승진및 전보인사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사법연수원수료생 36명이 9월1일자로 신규임용됐으며 여자검사2명이 첫배출됐다。

공석중이던 서울고검 東部지청장에는 尹鍾洙서울고검검사가 승진발령됐으며 南部지청차장에는 金基晛서울지검형사3부장、北部지청차장에는 成敏慶대검중앙수사부2과장、東部지청차장에는朴惠建南部지청부장이 각각 승진발령됐다。

또 釜山지검 1차장에는金有厚 2차장이 전보되고 2차장에는 張應水 서울고검검사가 승진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지금까지는 사시8회까지 배출됐던 고등검찰관에 사시11회까지가 승진기용됐다。

이번 인사는 城南 蔚山 海南 寧越등 4개지청신설과오는 8월말의 사법연수원수료생의 신규임용및 공석중인서울및 부산지검 차장、재경지청차장 자리를 메우기위한정례인사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화소식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 아직도 아침 일찍 FOOD TERMINAL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 제 도매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신을 갖고 일을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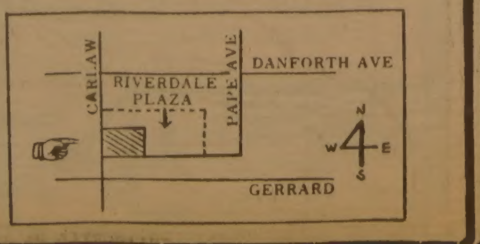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 7 >

新軍國주의 妄想

원자폭탄은 반경 1.5㎞이내에서는 秒速90m의 暴風을 일으킨다. 또 爆心 2㎞안에 있는 巨木은 물론 콘크리트 건물까지 엿가락처럼 무너져 내렸으며 목조건물은 완전히 납작해져버린다. 문밖에서 暴風을 맞은 사람은 열선풍에 빨려들어가 형체조차 알아볼수 없게 된다.

2차대전때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받아낸 결정적인 무기는 원자폭탄이었다. 일본은 8월6일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을 맞았으나 그것이 原爆인줄을 몰랐다. 3일후인 8월9일 다시 나가사끼(長崎)에서 한방을 더 맞고 할수없이 항복을 결심했다.

原爆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市엔 평화기념공원이 있고 해마다 被爆日엔 희생자慰靈祭를 지내면서 『核무기 증강을 중지하고 평화를 이룩하자』고 외친다.

原爆피해자인 주민들의 이런 호소와는 달리 일본 집권층에는 아직도 新軍國主義의 妄想과 엉뚱한 鄕愁가 깔려있다.

80년초 기자는 나가사끼市 평화기념공원에 가본적이있다. 평화의 탑주위에있는 비둘기들은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며한가롭게 노는 평화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原爆전시관을 돌러본 뒤에는 다른생각을갖게됐다. 原爆의 설명과함께 당시의 피해사진, 유물들을 전시해놓았는데 유물옆에는 그림자색깔의 사람형태가 박힌 두꺼운 판자도 있었다. 절규하는 시민들의 비참한 모습과 이 나무조각은 「미국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原爆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된 한국에서온 기자가 그런생각이 들정도이니 일본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오죽할까 싶었다.

原爆전시관을 만든 底意는 폭탄의위력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피하자는것이아니라 原爆에대한 분노와함께 미국에대한 적개심을불러일으키자는것이 아닌가 하는것이 당시의 느낌이었다. 최근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記述사실을 보고는 『역시 그랬었구나』하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됐다.

여하간 일본의 교과서개정은 쇼와(昭和) 元號의 공식사용, 평화헌법개정및 天皇의 통치권부활움직임, 수상의 야스쿠니(靖口)神社공식참배등과 함께 自民黨정부가 復古主義로 흘러가고있는 조짐이라고 볼수 있다.

自衛隊 방위전쟁 合法化
天皇통치권 復活 움직임

天皇이 바뀔때마다 年號를 바꾸는 절차인 元號法이 2년전 법제화되어 이제 공식적으로 昭和元號를 사용케 된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에 패한후 美軍이 진주, 45년부터 西紀를 사용해왔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昭和를 병행시켜오다가 이제는 西紀를 아예 없애버리고 戰前의年號를 법적으로 보장한뒤 天皇을 상징적인 존재에서실질적인 元首로 만들려하고 있다.

집권 自民黨의 헌법조사회는 지난달 28일 일본헌법 4條의 「天皇은 國政에 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항목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天皇에게 통치권을부여하려는 기도로 볼수있다.

이에앞서 헌법조사회는 지난달 7일 武裝自衛隊를 합헌적존재로 인정하고 방위전쟁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헌법9조는 「①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國權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陸海空軍, 그밖의 전력은 이를 保持하지 않는다. 나라의 交戰權은 이를 인정치않는다」고 전쟁의 포기와 戰力의 不保持를 못박고 있다.

이 규정때문에 일본의헌법학자들은 거의 모두 『自衛隊는 違憲』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문제는 법정으로까지 飛火되어 73년 北海道 삿뽀로(札幌)지방재판소(재판장 島重雄)는 「자위대의 편성 규모 장비 능력면에서 볼때 이것은 분명히 外敵에 대한 실력투쟁을목적으로한 人的 物的수단으로서의 조직체이며 헌법9조에 금하고 있는 戰力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수없다」고 違憲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일본은 하나의 독립국이다. 독립국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력을 갖는것은하나도 이상할게 없으며 자위력은 헌법9조가 保持를 금하고있는 전력과는 다르다. 따라서 자위대는 合憲이다」라고 강변해왔으나 이주장은 논리적으로 힘이 없었다. 왜냐하면 戰力이란 글자그대로 싸우는힘이며 그것이 공격력이든 방어력이든 구별할 필요가 없을뿐만아니라 실제로 구별될수도 없고 강한 방어력이 약한공격력이 될수도 없기 때문이다.

自民黨헌법조사회는 이러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위해②항을「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자위대를 둔다. 內閣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을 갖는다」로 바꾸고③항을신설, 「수상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防衛상태(非常사태)를 선언한다」고 함으로써 ▲자위대의 合憲的인 근거를 마련하고▲有事時 자위대의 통솔권자는 수상이며 ▲수상은 방위를위한 交戰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自民黨이 이같은 헌법개정案을 마련한것은 패전후 일본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反戰무드가 퇴조하고일본사회가 다시 保守右傾化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스즈끼(鈴木)수상은 금년부터 야스쿠니神社를 개인자격이 아닌 수상자격으로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야스쿠니神社란 전쟁에서 전사한 舊일본군의 位牌를 안치한 일본神道신앙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립묘지와 같은 곳이다.

미끼(三木)이래 역대 수상들이 이곳에 참배할때마다 국민들로부터『帝國주의의 亡靈이되살아나겠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수상들은『개인자격으로 참배하는데 이러쿵저러쿵할 필요가 없지않느냐』고 변명해 왔다.

분명 일본은 이제 敗戰당시의 일본이 아니다. 戰犯의 首魁인 도오죠(東條英機)를 영웅시하고 軍國주의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復古주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있는 일본으로 變身한 것이다.

지난30년代 일본은 軍國주의화되면서 소학교교과서 문장이 「피었다 피었다 사꾸라가 피었다」에서 「나가라 나가라 병사여 나가라」로 바뀌었다.

일본의 대륙침략을 美化하는 역사교과서의 史實歪曲은 일본소학교 교과서내용變質의 前奏曲이 아닌지 우려된다.

【李在武기자】

◇작년8월 美航母 미드웨이號의 일본기착과 때를 맞춰 社會黨, 總評護憲連合등 좌익세력들이 「헌법改惡을 저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데모를벌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形的인 데모의 밑바닥에는 新軍國주의의 망령이 도사리고있다.

"核무기 增強 중지하라" 示威속에 수상은 神社참배… 두얼굴의 國民性 드러내

"教科書 거짓쓰면 오래못가 亡한다"

李御寧교수-日작가 司馬遼太郎씨 「歪曲」대담

改惡조치는 젊은층서 主導 / 侵略을 進出로 쓰는건 欺瞞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책을 집필, 일본에서 최근 큰 반응을얻고 있는 李御寧교수와 일본의대표적 역사소설가 司馬遼太郎씨가 對談을통해 일본교과서 왜곡과 그것을 가능케한 일본인의 정신적뿌리를 논의했다. 8월20일자週刊朝日에 실린 이 대담에서 司馬씨는『교과서에 거짓말을 쓰는 국가는 얼마못가 망할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담내용을 발췌한것이다.

▲李御寧교수=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제일먼저 느끼는 인상은 왜 일본인은 그렇게 바쁘가하는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모빌리티가있다고 할수있고, 나쁘게 말하면 불안해서 늘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에 비하면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모빌리티가 모자랍니다. 아시아적 정체, 즉 안정되고 고정된모습이지요. 이데올로기적유교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가치관으로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것이 없기때문에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朝鮮 통신사들의 기록도 일본을 유교사회로 보지않고 있읍니다. 외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周風이란는 중이 쓴 『善隣國寶記』에는 선린이 왜나라의 보배인가하면 외국에 상선을보내면 언제라도 재화를 얻을수 있고 나라를 富하게 할수있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司馬遼太郎씨=周風은 15세기 室町시대의 禪僧으로 당시 정신계에서는 제1인자였으며 동시에 對明對朝鮮무역의 장관과 같은일도 맡았던 인물입니다.

『善隣國寶記』에 나오는것과 같은 이야기는 일본인이 볼때는 별로 이상한것이없는 일입니다. 江戶시대는 鎖國정책으로 백성의 문화적 호기심을 억누르던 시대였읍니다. 일본인도 선린국보의 사상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러던것을 江戶시대말기 일본에 와 통상을 요구한 러시아 사절 푸챠친이 이를 다시 일깨웠읍니다.

당시 러시아 文書官이었던 작가 곤자로프는 통상을 거부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을 위해희망을 가질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본에 유교가 정착돼 있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읍니다.

그리고 일본열도안에서의 연안항해이긴했으나 바다를 연락부절로 배가 오갔지요. 이것이 室町시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거리를 멀게하고, 지금 아직도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이상한것으로 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일본의 二元的구조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2원론구조의 대표적제도인 와까슈우쥬꾸(若衆組)란것이 정신적으로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락에는 촌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제사, 소방, 구조등을맡은청년단체가있어 촌장도 이청년그룹의우두머리와는 대등하게 대합니다.

와까슈우쥬꾸는 이청년그룹의 합숙소비슷한 것입니다. 아무리 촌장이라도 젊은 우두머리가『노』라고 하면 일할수없지요. 일본사회에서 이같은 기본구조의 잠재적 멘탈리티를 보여주는것이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계라고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구조는 부정적측면을 노출할때가 있읍니다. 심한예를 들면 제국주의시대에 거칠고 오만했던 일본육군참모본부와 陸軍省의 관계를 들수있읍니다. 육군대신이「어른체제」를 상징한다면 참모본부는 「청년그룹」입니다. 청년그룹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이 육군대신과 동격이었읍니다. 그참모본부가 정치적발언까지 해서 육군대신 나아가서는 내각까지 뒤흔들었읍니다.

참모본부의 젊은 요원은 明治시대 초기부터 朝鮮과 滿洲에 잠입해 그곳이 전쟁터가 될것을 전제로 지리조사까지 하고는 어른체제를 대표하는 육군(대신)을 충동하는 겁니다. 육군대신이 이를 받아들여 1920년대부터 거칠고 사려 분별없는 침략전쟁, 자신의 국력조차 고려하지않는무모한 전쟁을 하게되는 겁니다.

征韓論도마찬가집니다. 征韓論은 결국 조선침략으로 실현됐는데 그주역이伊藤博文입니다. 그도 막부말기에는 「청년그룹」이었다가 「어른」이 됐지만 對韓공작에서는 「젊은그룹」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주역이됩니다.

▲李=일본글자에 히라가나와 가다까나가 있읍니다. 젊은이는 가다까나처럼 직선적이고 힘이있으며 공격적인반면 어른의 세계는 원만하고 히라까나처럼 직선이 아닌 유연함이 있읍니다. 이 이중성이 없어지고 젊은이의 직선문화가 그대로 드러나 一元的사회가 됐을때 일본의 역사는 위험한 방향으로 달렸던거지요.

▲司馬=패전을 통해 일본인은 많은것을 배웠읍니다. 문제는 육군,해군이무너진 대신 내무관료가 남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인들이 병적이고 편협한애국심 (진정한 애국심이 아니다)으로 자기나라를 망쳐버렸읍니다만, 병적인애국심을 남에게 팔아 넘기고 보신한 문관들은 남아서 정치가가 되어지금이를 잇고 있읍니다. 그같은정계의 「어른」과 지금의「젊은 그룹」과 관계가 원만히 작동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여당안의 「어른」들은 파벌안의 「젊은 그룹」의 반발을 싫어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젊은 그룹」의 역할에 둔감합니다. 힘차게 움직여야할 여당의 「젊은 그룹」이 몰래 교과서를고치고 「어른체제」가 그것을 즐겨 묵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과서에 거짓말을 쓰는 국가, 특히 극히 최근의역사를 修辭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쓰는국가는 얼마못가 망하고 맙니다. 戰前의역사교과서와같이 「리얼리즘이 없는 교과서를 가진 국민은 자기나라의 實量이나 近隣과의 관계에대해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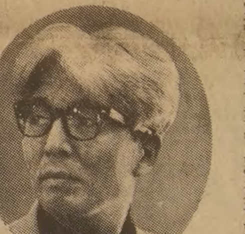
▲李=나는 오일쇼크때 일본을 거쳐 미국과 유럽을 간일이 있읍니다만 석유값이 오른데대해 어느나라의 주유소나 「값을 올렸다」고 표시하고있는데 일본만은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돼 있더군요. 自衛隊라고하면 군대가 아닌것같은 기분이 들고 「침략」한것도 「진출」했다고하면 엄연한 역사적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중국에마치 일본기업의 지점을낸것같은 기분이 드는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는 칼의 문화와 大阪상인의 「주판文化」가 있었다고 할수 있읍니다. 칼위에 구축된 역사는 반드시 타인의 희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원한을 가지는사람이 생기지요. 주판도 누군가 딴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읍니다. 칼의 피와 주판의눈물, 즉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려진 문화라는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합니다. 역사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東아시아에대한 새로운 인식과 역할이 일본의 새로운 세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東京12日=宋孝彬특파원】


◇작가 司馬遼太郎씨

◇李 御 寧교수

메아리

꼬리

金昌悅 <編輯委員>

오뉴월 개팔자라고 이른다. 한 여름 나무 그늘에 길게 늘어져 낮잠 자는 개를 연상한다.

三伏 허리에 개 얘기를 끄집어내는것은 보신탕 논의를 펴자는뜻은 아니다. 그저 낮잠든 개의 꼬리를 좀 관찰해 보자는 것뿐이다.

개가 낮잠을 잘 때, 염찌감찌에 주인이 나타났다고 치자. 개는 잠든채 눈도 뜨지 않는데, 꼬리는, 제풀에 움직이듯, 흔들린다. 환영의 뜻이다. 혹시 레이다처럼 꼬리에서 전파가 나와서, 주인을 분간하는 것이 아닌가 싶게 신기하다.

그렇지 않다 해도, 개꼬리는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표정이 풍부하다. 꼬리를 들고,내리고,두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것이 모두 뜻이 있다. 그래선지 개는 꼬리를 만지거나 잡는 것을 몹시 싫어 한다.

요컨대, 동물의 꼬리는, 대단한 効用이 있음직하다는 얘기다. 소에 꼬리가 없다면, 꼬리 곰탕의 別味 또한 없었겠지만, 그보다 들판의 소는 등에 앉은 쉬파리를 어떻게 쫓았을까 걱정이다.

손대신 나뭇가지를 감아잡는 원숭이의 꼬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고기로부터, 파충류의 단계를 거쳐 왔다는 사람의 進化과정은, 어찌 보면, 꼬리의 退化과정이나 같다.

역사상 최대의 파충류인 恐龍 디플로도크스, 몸길이25m에 달했던 그 덩치는 미국 피츠버그 自然史박물관에 전시된 골격을보아 실감하지만, 그 프로포션은 몸집이 7분의1에, 목이 7분의2, 나머지 7분의4가 꼬리다. 이거대한 꼬리와 허리가 닿는 부분 척추에 「제2의 腦」가 있었다고한다. 「제2의 腦」까지 갖춘 꼬리가 부질없이 달려만 있었다고는 생각되지않는다.

꼬리에는 꼬리대로의 구실이있다고한다면, 「꼬리없는 원숭이」는 꼭 進化의 결과라기보다 退化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든든한꼬리가 남아있었다면, 달리는 버스안에서도 三脚처럼 설수 있고, 그러면 두손으로 책을펴들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이런 어린애 공상 같은 푸념이 나오는 까닭은, 요즘 이사회에 꼬리떼기進化論이 너무 성한듯 한데 있다.

■안된 말이지만, 이 사회에서 꼬리대접을 받는 층은 老人, 그것도 「젊은 老人」들이다. 그 한가지 예가 계급정년을 단축한 「警察行政改善방안」이란 것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대학을 졸업한 25세 초임경관을 생각해 보자. 그가 경위로 임관한 뒤 전혀 승진이 안되면, 그는 계급정년 15년(新設)을 지나, 40세에 퇴임한다. 그가 昇進制限年數2년을 지나자 경감으로 승진한다면, 계급정년 12년(현행16년)을 지나 39세에 퇴임한다. 年齡정년(55세)을 앞서기 15~16년이다.

만일 그가 매우 우수하여, 가능한대로 빠른 승진을 거듭하면, 36세에 경무관이 되고, 계급정년 6년(현행8년)을 지나, 42세에 퇴임한다. 그가 高試에 합격한 초임 총경이라면, 29세에 경무관이 되고, 35세에 계급정년이 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年齡정년(60세)을 앞서기 18, 24년이다.

이런 모델은 좀 극단적이다. 起案者의 反論이 금방 들릴듯하다. 그러나 새방안은 年齡정년을 적어도 2~3년 끌어내리는 효과가있다는것이 경찰 스스로의 설명이다.

그러면 계급정년이 없는 순경~경사급의 非간부직은 어떤가. 이들은 일률적으로 50세 정년에 걸린다.

「젊은 경찰」의 패기도 좋지만, 이래가지고는 「믿음직한 경찰」「원숙한 경찰」로의 발돋움은 어렵다. 이것이 사회의 老齡化, 정년연장의 추세를 역행함은 물론, 壯年에 물러나야 하는 경찰에 얼마나 인재가 모일까도 걱정이다.

新陳代謝란 이름의 꼬리떼기는 꼭 도마뱀의 그것을 닮았다. 떼어 내면 다시 돋아난다. 그과정에서 꼬리떼기 進化論을 말하던 사람들이 조만간 꼬리대접을 받게된다. 그때 가서는, 그사람들은 스스로 꼬리効用論을 말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자 나를 따르라

이탈리아의 의류업자 모리지오·비탈레씨(36)가 내놓은「예수진」광고포스터. 『나를 사랑하는자는 나를 따르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청바지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문구가 등장한뒤 바티칸교황청당국과 미국, 그리스등지로 부터 神聖모독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제품은 날개돋친듯 팔리고있다. 비탈레씨가 11년전 가업을 인수했을때 그의공장은 연매출 4백만달러에 불과한 중소의류업체였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에 점포를 가지고 연매출 1억1천만달러를 넘보는 대의류메이커로 성장했다. 【뉴스위크誌】

美서 거세게이는 死刑논쟁

오리건·뉴욕州 法案채택여부 舌戰

海外토픽

최근 미국에서는 死刑에관한논쟁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있다.

10일 버지니아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을선고받은 프랭크·J·코폴라(38)가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앞서 그의 변호인측은 사형집행을 유예해줄것을 호소, 美제4순회항소법원의유예판결을 받아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 원심대로 사형집행을 확정했다.

코폴라는 지난78년 뮤니엘·해췔이라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받았으나 자신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코폴라는 美연방대법원이 지난76년 사형의 합헌성을인정한이후 다섯번째로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로 버지니아州로서는 20년만에 사형집행이 다시 이루어진것.

이날 코폴라의 사형이 집행된 버지니아州교도소밖에는 약1백명의 사형집행반대자들이『사형은 인가받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란 플래카드와 촛불등을들고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현재 법률상 사형제도를 채택하고있는 州는 지난 6일 사형법안을 확정한 뉴저지州까지 합쳐 35개주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매사추세츠주는 오는11월 사형법안을 포함한 州헌법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이며 오리건州와 뉴욕주에서도 사형법안채택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있다.

★★★★★★★★★★★★★★★★★★★★★★★★★★★★★★★

모짜르트 음악학원 학생모집

★★★★★★★★★★★★★★★★★★★★★★★★★★★★★★★

저희 음악학원에서는 폭발적인 부모님들의 자녀 음악교육 성원에 힘입어 HILL CREST MALL(영×리치몬드힐)내에 제2분교를 개설해서 자신을 갖고 책임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수한 시설과 명문대학 출신들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저희 음악학원에 자녀들의 음악교육을 맡겨주십시요.

우수한 학생들의 장려를 위해서 장학금제도로 실시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섭 올림

※수시로 등록할 수 있읍니다.

모짜르트 MUSIC CENTER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터무니없는 延滯料

金利인하불구 "돈벌이" 인상

銀行선 18%로 내렸는데도 아파트 중도금등 최고 24%

전당포 年72% 엄청난高率
百貨店신용판매 월2~4%
家電品 월부금은 다소내려

정부의 금리인하조치에따라 은행대출금연체요율도 대폭 내렸으나 아파트 건설업체등 일부업계서는 중도금등의 연체료를 종전보다 오히려 올려받는결과를 빚고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활시키기위해 은행의 예금및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대 출금연체요율도 연22%에서 18%로 4% 내렸다. 그러나 아파트건설업체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연체했을경우 종전 16·2%였던 연체금리를 연18%로 오히려 올려받고있다. 이에대해 아파트건설업체에서는 건설부가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금 연체금리를 상한선으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를 따른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처럼 고율의연체료를 받고있는 업체는 민간아파트건설업체가 더욱심해 연24%까지 징수하는경우도있으며 전당포역시 은행금리인하와는 관계없이 월6%, 연72%의 고율이자를 그대로 계속받고 있다.

또 백화점신용판매때의 이자도 백화점에따라서는 월2~4%씩받고있어 인하된 은행금리를 웃돌고 있다.

아파트중도금연체료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기한내 중도금을 내지못한입주예정자들에대해 부과하는과태료ー성격의 부과금인데 아파트건설업자들은 대부분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을시작,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 1, 2년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도금을 연체할경우 고리의 연체료를부과하는것은 결국금리장사를 겸하는 셈이된다.

건설부는 지난달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분양시 중도금, 잔금등을기한내 납부치못한 입주자들에대해서는 연체요율을 연18%까지받을수있도록 허가했는데 이에따라 서울시도 시영아파트의 중도금 체납자에대해 연18%의 연체료를 징수하고있고 민간건설업자인 S주택의 明逸洞 아파트의경우는 중도금, 잔금 체납자에대해 연24%를, 또H주택, K기업등 건설업자들도 21~24%의 고율연체료를 받고있다.

S주택의 한관계자는 중도금을 체납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에따라 40~70%가량된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체납자는 자신이 살던집이 처분되지않아 중도금을 기한내 내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도금을 연체한 한입주자는 『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받는 건설업체들이 입주도하지않은 상태의 분양자들에게 고율의 중도금연체료를 받는것은 은행금리인하를 틈타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하는 결과가 아닌가』고 말했다.

이에비해 연체료를 종전보다 내려받는 업체도있다. S건설의 吉洞아파트는 연체료를 연10%만 받고있는데 이회사의 한관계자는 『은행금리 인하이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심해 연체료를 은행금리에맞추어 연10%로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동산문제연구소 鄭鎭宇소장(40)은 『정부가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체료를 이전의 정기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연체료이율로 높인 것은 과잉보호』라고 지적했다.

한편아파트관리비의경우 연체될경우 1개월에10%선에서 연체료를 받고있으며 연체기간이 한달이 넘어서면 다시 4~5%씩 가산하고 있는데 기일내에 내지못해 하루만늦어도 무조건 10%의 연체료를 받고있다.

또 백화점의 신용판매의경우도 기한안에 내지못할경우 2%~4%의 연체료를 받고 있는데 연체가 한달이 넘으면 다시 2~4%를 가산시키는곳도있다.

전당포는 10여년전부터 전당포영업법 규정에따라 월6%의 고이자를 받고 있는데 전당포는 확실한 물적담보를 잡고있어 위험부담률이 전혀 없는데도 연72%의 이자를받는것은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냉장고 컬러TV등가전제품이나 피아노 승용차의 월부납입금속에 포함된 금리는 은행금리 인하후 계속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S피아노의 경우는 1년월부 판매경우 현금가격에 은행금리수준인 10%만을 더 받고 있고 냉장고 컬러TV등 월부판매가격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鄭在龍기자】

불볕더위 한풀꺾여

태풍 세실影響圈에 西南部해상에 波浪주의보

10여일동안 기승을 부리던 三伏더위가 12일을고비로 한풀꺾였다.

중앙기상대는 12일 11호태풍 세실이 우리나라에접근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기단(氣團)이 팽창, 그동안 전국이 30도를웃도는 무더위를 보였으나 고기압기단의약화로 12일부터는 불볕더위가 다소수그러져 당분간 27~32도의기온을나타내면서 곳에따라 뇌우를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이날낮12시 현재 북위29·9도, 동경123·8도 대만북동쪽 해상에머물고있는 제11호 태풍세실이세력이 약화돼 정체현상을 보임에따라 고기압기단이 약화된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대는 태풍세실이 거의 정체된상태여서 아직 우리나라의 상륙여부는 알수없으나 중심부근에서는 최대풍속 초속35m의 폭풍우를 동반하고있어 濟州 남부지방은 이미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었다고 밝히고 남해해상과 서해남부해상엔 파고3~5m의 파랑주의보를 내렸으므로 앞으로의 기상통보에 유의해줄것을 당부했다.

【釜山·光州·濟州】 태풍 세실이 북상함에 따라 서해안남부와 남해안일대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2일 상오현재 모두 1천5백여척의 각종 선박과 2만명의 피서객및 승객들이 발이묶인채 인근항구에 대피하고있다.

모래채취선 食水탱크 수리하다 가스질식 3명숨져

【仁川】 12일 상오11시께 仁川市中區港洞26의27 남양부두안에 정박해있던 모래채취선 한라2호(4백79톤·선장 이석영·39)에서 식수탱크 수리작업을하던 정일기공사 주인 이정근씨(39·仁川市南區崇義洞417)와 용접공 이은재(38·同) 이웅광씨(20)등 3명이 가스에질식돼 숨졌다.

李씨등은 이날 상오10시54분께 배에설치된 높이 2m 지름3m의 물탱크를 용접,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탱크안에 가득찬 가스에질식,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 용접공들이밀폐된 탱크속에 남아있던 바다물이 부패, 발생한가스에 질식돼 숨진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있다. 【聯合】

승용차 도로밑추락 民家덮쳐 7명死傷

【光州】 12일새벽3시25분께 光州市西區孝德洞앞도로에서 木浦로 가던 서울3가7466호 자가용승용차(차주겸 운전사 鄭落敎·42·서울恩平區鍮山洞)가 2m 도로밑으로 떨어지면서 鄭吉純씨(30·光州市西區孝德洞505)집을들이받았다.

이사고로 차에타고있던 필순씨(25·木浦市務安洞10)가 죽고 운전사 鄭씨 3명을 비롯한 승객 2명과 鄭씨집안방에서 자고있던 부인金順姬씨(26)와 아들 圭鎬군(1)등 6명이 중경상을입었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腦炎환자 계속늘어나

全國확산 全南5·京畿道內 1명앓아

【光州】 뇌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2일상오 전남海南郡北平面新月里 朴順玉양(13)과 전남寶城郡鳥城面龍田里 신기부락 김광춘군(2)이 고열과 혼수상태에 빠지는뇌염증세를 일으켜 전남대의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莞島에서 진성뇌염환자1명이 발생한것을 비롯, 莞島郡靈巖·珍島·海南·寶城등 모두 5개지역에서 5명이 뇌염증세로 치료를 받고있다. 【聯合】

【光州】 11일하오 전남莞島郡靑山面道凉里875 兪永閏군(10·청산국교 3년)이 의사뇌염증세로 전남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받고있다. 【聯合】

【水原】 경기華城郡松山面龍浦里 송근재씨(35)의 장남 현하군(7)이 뇌염증세로 11일 水原市池洞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했다. 【聯合】

◇태풍에 쫓겨난 1백만 피서객 제11호 태풍 세실의 영향으로 남해안 일대에는 3~5m의 높은 파도가 일어 모든 여객선과 어선의 발이 묶였다. 또 1백만의 피서객들이 붐비던 海雲臺해수욕장은 입욕금지령이 내려져 한산하기만하다. 【釜山=聯合】

電波商주인 被殺

목·가슴등 30여곳 찔려

11일 하오8시40분께 서울道峰區水踰2洞346의12 금성전파사 안방에서 주인徐海雲씨(25)가 목과 가슴등30여군데를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것을 이웃 환영식품점주인 李恒雄씨(46)가 발견했다.

李씨에 의하면 불이 꺼진 전파상에서 수돗물이 흐르는소리가 들려 촛불을 켜들고 점포안으로 들어가보니 徐씨가 피투성이가 된채 안방쪽에 비스듬히 기댄자세로쓰러져있었다는 것이다.

숨진 徐씨는 지난해 5월전세금4백만원에 가게를 세내 혼자 전파상을 경영해왔는데 이날 상오10시께 동거하던약혼녀 文모양(23·전북金堤郡進鳳面)을 배웅하고 돌아와 가게일을 보다 변을당했다.

경찰은 12일상오 상경한文양의 진술에따라 가게안에있던 약혼반지와 현금등이 든 소형손금고가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10여일전 徐씨를찾아왔던 고향친구3명을 용의자로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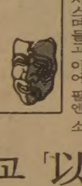
소양강댐 가뭄극심 放水중단해도 여전

【春川】 소양강 다목적 댐이 극심한 가뭄을 맞고있다. 12일현재 이곳 댐수위는 168·46m로 지난달 27일방수를 중단한후 17일동안 1m85㎝의 물이 차올랐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10일부터는 상류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이전혀없어 더이상수위가 올라가지않고있다. 【聯合】

零下의 三伏

한국냉장 製氷室 金良洙씨

두툼한 파커입고 「以寒治熱」 17년



「영하 10도」. 요즘같이 숨이 꽉꽉 막히는 무더위속에선 차라리 꿈의 온도다. 金良洙씨(44·사진)는 그꿈의 「영하 10도」 속에서 일하는 행운아.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그는 오히려 추위와 싸운다고 해야 걸맞는 사람이다.

金씨의 일터는 서울鷺梁津수산시장에있는 한국냉장 제빙실. 얼음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면 싸늘한 냉기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온다. 창고안엔 푸른빛이 감도는 투명한 얼음덩이가 가득차있고 주위엔 온통 서리가 서려있다. 찬기운이 금방 뱃속까지 스며들고 이어 팔엔 소름이 돋는다.

金씨는 자그마치 17년간을 「무위」 속에서 추위와 싸워왔다. 지난 65년 華城에서 농사를짓다가 상경, 東洋제빙의 얼음운반인부로서 얼음인생을 열었다. 처음엔 고생도 많았다. 삼복더위에도 감기가 떠날날이 없었다. 이제와선 감기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상오9시에 출근하면 삼복더위에도 두툼한 파커로 중무장한다. 일단 제빙실에들어가면 24시간을 계속일하고하루를 쉰다. 격일제근무다. 24시간동안 계속얼음을만들어 쌓고 꺼내준다. 우선 수도물을 걸러 소독해 氷管에넣고 영하9~14도의 제빙실에서 얼린다. 48시간을 기다렸다가 물에넣어 얼음을빼낸다. 간단한듯하지만 무색투명한 얼음을만드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수도물의 불순물이 남아 얼음이 붉은빛을 띠거나 허연 白氷이된다.

하루 3~4백장의 대형 얼음덩어리를 다룬다. 『이보다 더 좋은피서가 있겠느냐』고 넌지시 물으니 『날씨가 더울수록 「추위 고생」이 크다』는 엉뚱한 하소연이 메아리처럼 와 닿는다. 요즘처럼 바깥과의 기온차가 45~46도에 이르면 자칫 잘못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 고생을 하게된다고 푸념한다. 에어컨에의한 냉방병 정도의 얘기라면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다고설명한다.

『정성껏 만든 얼음이 불결하다는 소리를 들을땐 괴롭기만합니다.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는듯해요』 제빙실에서 얼어가지고 나온지 얼마되지도않았는데 그의 이마에 벌써 땀방울이 매달렸다. 「以寒治熱」이란게 쉬운일은 아니구나. 【姜秉泰기자】

침몰 三普배너號 船員명단

▲金成哲(30·선장·釜山市龍湖1洞423의22) ▲徐鎭述(35·1등항해사·釜山市安樂洞245의76) ▲許洋(26·2등항해사·서울 押鷗亭洞351의55) ▲金龍石(31·3등항해사·釜山市蓮山1洞456의30) ▲洪淵杓(30·기관장·釜山市盤如1洞1477의1) ▲金星鎬(35·1등기관사·釜山市富民洞3街22) ▲禹湧成(24·2등기관사·釜山市安樂洞998의6) ▲李永雨(21·3등기관사·釜山市土城洞1街8) ▲安承默(34·통신장·서울 安岩洞2街139의22) ▲朱雲德(52·갑판장·釜山市新仙洞3街72) ▲鄭學模(48·갑판수·釜山市大平洞2街32) ▲權明好(36·갑판수·釜山市南富民洞611) ▲吳泰煥(30·갑판수·釜山市萬德洞743) ▲張永安(43·갑판원·濟州道 北濟州郡 翰林邑金陵里1355) ▲文錫閏(29·갑판원·釜山市田浦1洞687의17) ▲朴日用(25·갑판원·慶北金泉市平和2洞215) ▲鄭英植(38·甲見·釜山市下端洞832) ▲康鍾鎬(18·甲見·江原道東海市墨湖洞84) ▲鄭元泳(46·조기장·釜山市槐亭洞219의1) ▲呂賢九(45·기관수·釜山市 영주아파트 16블록 가동109) ▲崔巨勳(33·기관수·釜山市南川洞148의10) ▲張聖道(36·기관수·釜山市光復洞2街3) ▲安義淳(31·기관원·釜山市德浦洞627) ▲左榮準(30·기관원·濟州道北濟州郡朝天面咸德里1314) ▲金雲秀(29·기관원·釜山市凡川2洞산44의19) ▲池健甲(23·기원·釜山市草梁6洞산10) ▲李勇根(43·조리수·釜山市草梁洞669) ▲張덕용(29·조리원·釜山市下端洞500의69) ▲李用憲(23·司員·釜山牛岩2洞189) ▲柳昌南(32·전기사·釜山市大淵4洞1172의122)

內雪嶽에 모노레일

建設部 麟蹄龍岱里~百潭寺간 8㎞계획

건설부는 국립공원인 설악산 내설악에 등산객수송을겸한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결정,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위한협의에 들어갔다.

12일 건설부에의하면 모노레일가설구간은 강원도麟蹄郡北面龍岱里에서 百潭寺입구까지 8㎞.

건설부당국은 현재 百潭寺앞까지 이미 차도가 나있어 자동차매연공해가 우심해지고 있는데다 용대리—백담사—만등령—설악동까지 내설악등산코스가 하루로는 부족한 긴코스인점에 비춰 백담사앞을등산깃점으로개발할 필요가인정됐다고설명했다.

그간 이지역을 찾는 등산·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는데도 차편이 없어 麟蹄—東草간 도로변의 龍岱里에서내설악등산 깃점인 백담사까지 8㎞를 걸어다녀 등산객들이 등산일정을 늘려야하는등 경제·시간상의 불편이 컸다.

모노레일설치및 운영은 현재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구체안이확정된다.

豪雨동반 突風 몰아쳐 가로수·電柱등 쓰러져

抱川서

【議政府】 11일하오5시30분부터 6시10분사이 경기抱川郡일부지역에 집중호우와 돌풍이일어 국도변의 가로수와 전주등이 쓰러지는 피해를 냈다.

이날 40여분간 앞을볼수없을정도의 집중폭우가 쏟아지면서 돌풍이불어 抱川郡新北面과永中面사이서울—鐵原을 잇는 국도에 심어진 20여년생 포플러 90여그루와 4개의 전주가 쓰러져 한때 교통이 두절되기도했다. 【聯合】

日역사歪曲에 항의 손가락절단·焚身도

12일 낮12시30분께 서울鍾路區中學洞18 주한일본대사관 정문앞에서 朴佳浩씨(36·주거부정)가 일본교과서의역사왜곡과 각료들의 망언에항의, 식칼로 손가락을 자른뒤 석유를 몸에붓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朴씨는 이날 낮 12시께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복회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언론기관에 전한뒤 식칼과 4ℓ들이 석유통을 들고 대사관앞으로가 「일본놈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궐기하라」는등 구호를 외치다가 왼쪽검지를 잘랐는데 석유를몸에 붓는 순간 주변경비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峴底洞 지하철事故 6명에禁錮등 宣告

서울형사지법 金然泰판사는 12일상오10시 서울峴底洞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三湖 토목이사 金貫起피고인(43)등 5명과 불구속기소된 李長福피고인(32)에게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 2명에게 금고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같다.

▲朴仁華(53·현장소장)=금고2년 ▲張勝元(38·현장약기사)=〃 ▲金貫起(43·三湖토목이사)=금고1년6월집행유예3년 ▲權萬洙(37·현장감독)=〃 ▲李長福(32·현장공사과장)=금고1년 집행유예2년 ▲洪在杓(30·굴착공사감독)=〃

「離散가족의 날」 行事 以北 5道民會서

평화統一방안 수락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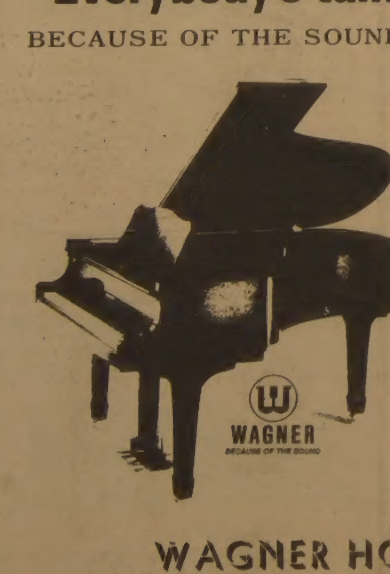
이북 5道민중앙연합회(회장 金連珪)는 12일상오10시 서울中區獎忠洞 統一회관에서 『離散가족의 날』 제정행사를 갖고 국제기구에 보내는 호소문과 北韓동포에게 보내는메시지를 낭독하는 한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수락결의문을 채택했다.

金連珪회장은 대한적십자사가 南北이산 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날을 『離散家族의 날』로 정한것은 『이산가족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적운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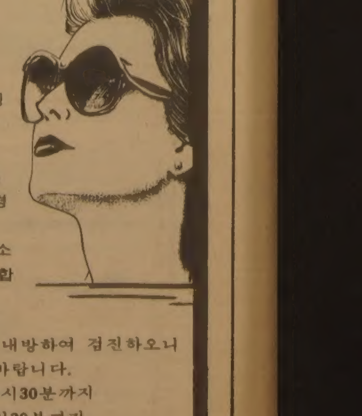
이산가족 대표이기도한 金회장은 이어 적십자국제위원회총재,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소위원회위원장, 국제사면위원회사무총장앞으로 보내는 호소문에서 『정부와 韓赤의 노력에도불구하고 일체의대화를 거부하는 北韓측의 경직된 태도로보아 1천만이산가족들의 문제가 가까운장래에 해결될것같지 않다』고 전제, 『이들 국제기구가 이산가족문제에 각별한 관심을갖고 중단된 南北적십자회담의 재개를위해 적절한중재를 해줄것』을 요청했다.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다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馬山商 8強 합류

鄭命津역투…大田타선 꽁꽁묶어

大田, 7·9회 절호의 찬스놓쳐 憤淚

4-1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제12일

사이드 드로어 鄭明津의 쾌투에 힘입은 馬山商高가 봉황대기 8강대열에 뛰어올랐다. 12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2회봉황대기 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12일째 3회전경기서 馬山商은 뛰어난 컨트롤을 가진 사이드 드로어 鄭命津의 역투로 大田高타선을 산발 6안타, 1실점으로 선방, 4-1로 승리했다. 鄭命津은 이날 9회동안 35타자 6안타 5포볼 7三振 1실점을 기록했으며 7·9회의 위기를 더블 플레이와 삼진으로 막아냈다. 11일 3회전서는 淸州高가 두차례의 동점을 이루는 접전끝에 金鎭圭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얻어 東山高를 9-7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馬山商-大田高

馬山商은 경남야구의 숨은 보고(寶庫)다. 우완정통파로 각광받던 왕년의 명투수 柳永洙감독은 東亞大 에이스인 사이드드로어 朴東洙를 길러내더니 이번 대회서도 사이드드로어로서는 드물게 컨트롤이 좋은 유망주 鄭命津을 선보였다.

키가작은 鄭命津은 2회초 大田에 2안타를 허용 1점을 뺏겼으나 이후 절묘한컨트롤로 인코스직구와 슬라이더를 구사, 大田타선을 산발 8안타로 처리, 馬山商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大田으로서는 불운한 스타트였다. 1년생 李文載를 선발로 내세웠다가 馬山商에 적시타를 얻어맞아 3점을잃은 후에 2년생 朴鎬一로구원, 朴의역투로 馬山商의 공세를 둔화시켰다.

馬山商은 1회말 선두1번 曺鉉珉이 좌전안타로 포문을 열고 2死후 5번曺永川의 좌전적시타로 간단히 1점을선제했다. 2회초 大田에 2안타를맞아 동점을주었으나 2회말공격에서 大田선발 李文載의난조를 틈타 2득점, 우세를 지켰다.

1死후 8번鄭命津이 좌전안타를 때리고 9번高永述이 메드볼로 찬스를잇자 1번曺鉉珉이 적시에 우전안타를날렸으며 계속된 2死 2·3루 찬스서 大田투수 李文載의폭투로 2점을 얻어냈다.

6회까지 4-1로 앞서가던 馬山商은 7회초 無死만루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역투하던 鄭命津이 大田선두5번 安爽源과 6번黃大淵에게 연타를 맞고 7번 吳桂鉉에게 포볼을허용했다. 이 핀치에서 馬山商은 大田 8번 대타金榮均의타구를 2루수 라이너로 잡고 미처 제 베이스로 돌아오지못한 3루주자마저 아웃시켜 더블플레이에 성공했다.

鄭命津은 마지막타자를 三振으로 쫓아냈다. 大田구원투수 朴鎬一도 슬라이더와 변화큰 커브를구사, 6회에 2안타로 1점을 잃었을뿐 기세등등하던 馬山商타자들을 범퇴시켰다.

大田은 9회말 포볼과안타로 얻은 無死1·2루의 마지막찬스마저 7번대타 閔東鉉의 타구가 유격수플라이로잡히며 병살타가되어 놓치고말았다.

◇제12일 3회전

	1	2	3	4	5	6	7	8	9	계
대전고	0	1	0	0	0	0	0	0	0	1
마산상	1	2	0	0	0	1	0	0	X	4

▲대전투수=李文載 朴鎬一(2회) 포수=朴宰鎭 ▲마산상투수=鄭命津 포수=崔洛基 ▲안타=대전6-8마산상

◇제11일 3회전

	1	2	3	4	5	6	7	8	9	계
청주고	0	0	0	1	5	0	0	3	0	9
동산고	0	0	4	0	0	0	2	0	1	7

▲청주투수=張定淳·崔有植(3회) 포수=李揆晃 ▲동산투수=崔容男(1·5회) 金東熙(4회) 朴銀眞(4회) 포수=金銀洙 ▲안타=청주13-11동산

◇2루를 훔쳤다 馬山商과 大田高의 접전. 馬山商 공격 3회말 1루주자 崔洛基㊧가 2盜를 감행, 大田 포수 송구가 워낙 높아 大田 2루수 姜舜成㊥의 키를 넘기는 바람에 崔는 여유있게 세이프.

절묘한 사이드 드로어 연습 하루 2~3백개

봉황스타

馬山商 투수 鄭命津

大田高 타봉을 6안타 1실점으로 완봉한 馬山商 사이드드로어 鄭命津(3년)은 컨트롤이 뛰어난 馬商의 柳永洙감독이 가장 신임하는 투수.

지난해 까지만해도 내·야수로 활약하다 선배투수 朴東洙(현東亞大 2년)의 뒤를 이을 투수로 柳감독이 발탁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한게 흠이다.

특기는 타자의 몸쪽에서 떨어지는 싱커. 이날은 주로 아웃코너직구에 승부를 걸었다고말했다.

매일 2~3백개씩 투구연습을하는노력형의선수. 馬山월포국5년때부터 야구를 시작, 馬山東中을 졸업했다.

이번대회 江陵高와의 7회 無死만루와 9회 無死 1·2루의 위기에서도 상대타자를 맞춰잡는여유를 보였다. 大田전서도 완투했다. 馬山서 전축업을하는 鄭錫球씨(51)의 2남1녀중 장남. 1m70, 70kg. 釜山産業大에 진학예정으로 취미는 낚시.

◇熱氣 봉황구장의「특석」 특석이 따로없다. 수은주가 35도5분까지 치솟자 봉황구장을 찾은 팬들이 무더위를 피해 외야전광판아래 통로에 모여 관전하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봉황대기 중계일정

일	대진	시간	채널
13	부산고-성남고	3:00	KBS 2라디오
	경북고-광주일	6:00	KBS 2TV, KBS 1라디오
14	배명고-대구고	1:00	KBS 2TV
		1:10	MBC TV
	재일동포-북일	3:00	라디오 서울
		3:35	KBS 1TV
15	준준 결승	2:10	KBS 2TV (라디오미정)
16	〃	5:30	〃
17	〃	3:00	MBC TV
	〃	5:30	KBS 2TV
18	3·4위전	2:50	KBS 1TV
	결승	6:00	KBS 1TV

◇방송국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음

첫날 孫甲道·李淙永 판정승

세계 아마레슬링 自由型 日·헝가리選手에

【에드먼턴(캐나다) AP聯合】 82년도 세계 아마 레슬링 선수권대회(자유형)가 12일 낮(한국시간) 한국을 비롯한 2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 첫날 1차전서 한국의 孫甲道(48kg급)와 李淙永(57kg급)이 각각 판정승을 거두어 호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80·81년 세계 선수권대회 48kg급 은메달리스트인 孫甲道는 日本의 이시까와·신이찌와 맞서 치열한 공방전끝에 판정승(7-4)을 거두었으며, 57kg급 1차전서 李淙永은헝가리의 임레·잘론터이에게판정승(7-5)했다.

한국은 이번대회에 孫甲道·李淙永을 비롯 金鍾奎(52kg) 李正根(62kg) 尹炯在(68kg) 韓明愚(74kg) 金基正(1백kg)등 7명을 출전시키고 있다.

◇金메달의 귀국 개선한 魯昊官。 환영식서 아마레슬링협회 李健熙회장이 격려하고있다。

J아마레슬링 選手團개선

어제 金浦공항서 성대한 환영식

82년도세계주니어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4~7일·미국콜로라도 스프링즈)에서 금1, 은3, 동메달1개로종합4위를 차지한 한국대표선수단(단장安光烈협회강화위원장)이 12일상오 6시40분 KAL便으로 개선했다.

자유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魯昊官선수(18·주택공사·조선대체육과1년)를 선두로 트랩을 내린 선수단은 金浦공항광장에서 거행된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에서 李健熙회장은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거두고 귀국한 선수단의 노고를치하한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더욱 정진, 84년LA올림픽과 88년 서울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달라』고 당부했다.

梁正模코치는 최근 세계레슬링의 추세가 스피드화되고 있다고 전제, 체력의 밑받침 없이는 세계정상정복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12일 魯昊官선수를 6급사원에서 5급사원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남녀 12명올라

국제卓聯 50位랭킹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표한 81~82시즌 세계랭킹에 세계선수권대회 銅메달리스트인 한국의 李壽子가 4위에서 7위로 떨어졌으나 남자3명 여자9명이 랭킹50위내에 대거진출했다.

남자부의 경우 朴利熙가 14위(종전13위) 金浣이 36위(종전36위)에 랭크됐으며 金琦澤이 49위에 새로 올랐다. 여자부서는 李壽子 7위에이어 安海淑이 29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으며 金庚子가 16위(종전38위) 黃男淑이 38위(종전11위) 金貞美(29위) 尹璟美(37위) 白良美(42위) 鄭庚子(47위) 朴末粉(50위)등도 랭킹50위내에진입했다.

한편 中共은 남자12·여자11명이 50위내에 진출했으며 北韓은 남자3명, 여자 2명등 5명이 랭크됐다.

여자부의 경우 한국은 9명의 랭커를확보, 中共의11명에 이어두번째로많은선수가 50위내에 올랐다.

◇세계랭킹

▲남자부=①郭躍華(중공) ②蔡振華(중공) ③謝賽克(중공) ⑭朴利熙(한국) ㉘조용호(북한) ㉞홍순철(북한) ㊱金浣(한국) ㊾金琦澤(한국) ㊿홍철(북한)

▲여자부=①童玲(중공) ②曹燕華(중공) ③張德英(중공) ④齊寶香(중공) ⑤陳莉莉(중공) ⑥戴麗麗(중공) ⑦李壽子(한국) ⑨박영순(북한) ⑬安海淑(한국) ⑭이성숙(북한) ⑯金庚子(한국) ㉙金貞美(한국) ㊲尹璟美(한국) ㊳黃男淑(한국) ㊷白良美(한국) ㊼鄭庚子(한국) ㊿朴末粉(한국)

嶺南팀끼리 4強

會長盃 중고축구

【釜山】제9회 회장배쟁탈 중고축구대회 고등부의 패권은 馬山工-釜山소년의 집機工, 晋州高-大倫高의 嶺南지역 4강대결로 좁혀졌다.

11일 속행된 대회9일째 준준결승전에서 馬山工은 일방적인 공세끝에 후반29분과 34분 FW成正佑 鄭陽洪이 연속골을 뽑아 全北體高를 2-0으로 완파하고 홈팀 釜山소년의집機工과 결승진출권을 다투게 되었다.

晋州高는 서울龍文高와 0-0으로 비긴뒤 승부킥서 4-2로 승리, 大邱大倫高와 준결승전을 갖게되었다.

◇제9일 전적

▲고등부 준준결승

마산공 2-0 전북체

부산소년의집 1-1 영남상 〈승부킥4-3〉

진주고 0-0 용문고 〈승부킥4-2〉

대륜고 1-1 부산상 〈승부킥5-3〉

프로야구

金成琯 2점홈런

롯데, 홈팀三星에 4-3

롯데 자이언츠는 11일 大邱에서 열린 홈팀 三星라이온즈와의 경기서 5회초金成琯의 2점홈런등 10안타로 三星에 4-3으로 역전승, 7승8패로 4위를 고수했다.

◇11일전적

◆대구

	1	2	3	4	5	6	7	8	9	계
롯데	0	0	0	1	3	0	0	0	0	4
삼성	0	2	0	0	0	0	1	0	0	3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

스포츠短信

◆대한柔道선수단 오늘歸國

◆…핀란드 제7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한국대표선수단이 13일 하오3시반 KAL편으로 귀국한다. 대한유도회는 金浦공항광장서 환영식을 갖는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88>

양달 ㉓

몇살때쯤 찍은 사진일까? 그 사진은, 수지가 알고지내고, 또 얼마전에 잡혼하게 상처입힌 오목이하고 거의 닮아있지 않았다. 그 보다는 다섯살적의 오목이의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구석이 많았다.

약물속에서 인화지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망각속에 숨어있던 다섯살적의 오목이의 모습이 차츰 차츰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진속의 얼굴과 겹쳤다.

잊어버렸으려니 했다.「오누이의 집」에서 처음 오목이를 보았을 때도, 그 오목이가 온표주박 목걸이를 늘이고 있는 걸 보았을 때조차도 모습으로 생각나는게 전혀 없기에 아주 잊어버렸으려니 했다.

그러나 그 우표딱지보다 작고 희미한사진은 그녀의 망각속에 꼭꼭 숨겨둔 다섯살적의 오목이를 불러일으켰을뿐 아니라 어른이된 오목이와의 이음줄까지되고있었다.

내가 발끔맘했던가. 얼굴이상으로 믿음만한 친표가어디 있나고.

수지는 그사진을 모른다하기 위해 도리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못알아보겠어요. 이십년전에 헤어진애예요』

실물을 보며 모른척할때보다 더욱 두려워하며 더욱 절망하며 그녀는 사뭇완강하고 도도하게 고개를저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사진만 가지곤 아무것도 모르겠더구나. 그게 이십년전 일이긴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벌써 이십년이나 지나다니』

수철이 섬찮고 침통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얼핏 스친 회심의 미소는 어딘지 떳떳치 못했다.

『오빠, 오빠하고 난 달라요. 그때 난 겨우 일곱살이었지만 오빤 열다섯살이었어요. 수인이는 다섯살이었구요. 일곱살, 다섯살이 되자마자였으니까 여섯살 네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너덧살적 일은 모른다할수 있어도 열다섯살 적 일은 모른다할순 없어요』

『그렇게 내 기억력을 믿어주니 고맙구나. 이 사진은 내가 기억하는 수인이하고 많이 달라. 수인이를 찾고 싶은 마음에 섣사 조금 비슷해 보인다고치자. 성장기의 이십년동안에 사람은 많이 변한단다. 특히 여자는. 오목이란 이름을 그냥 들어 넘길수 없어다 자란 그 애를 찾아갔다고 치자.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로 알아볼 수 없는 이상 달리 무슨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접어두니만 못한 부질없는 짓이기에 안한거다』

수철이의 변명은 나무랄데가 없었다. 수지는 그 나무랄데 없음에 강한 적의(敵意)를 느끼며 수철이를 노려보았다.

그는 기억할까? 천구백오십일년의 겨울을. 그 겨울의 추위와 그 이상한 허기를. 일곱살 먹은 계집애에겐 그때의 허기는 이상하다고 밖에 설명할수 없는거였다.

한개의 고구마, 한공기의 밥을 더 먹기위해 동생을 내다버려야겠다는 악마의 모의를 꾸미게했던 그 이상한 허기에 대해서도 그는 아마 모른다고 하리라.

열다섯살때의 수철이의 모습이 어제런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는 과묵하고 냉담하고 자존심이 대단한 소년이었다.

그의 남다른 자존심은 어린 누이동생들의 그 이상한 아귀다툼으로부터 초연할수 있는게 고작이었다.

『그때도 오빤 모른척 하기 선수였어요』

그녀는 흰 이를 드러내고 자신의 분노를 과장했다. 모든 일이 그가 모른척한데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그가 미웠다.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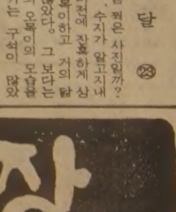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룰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
월~금(주말은 쉼) 11:00 a.m~4:00 p.m
전화 : 438-0403 (6시 이후. Mrs. 유)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Mr. 모리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도미니언 도나스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구함
(칼레지×영 써브웨이스테이션 건물안)
직접 내방바람.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경험있는 Helper 구함.
(GreenWood & Queen)
전화 : 466-3995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베비시터

Baby Sitter 구함.(Jane & Finch 지역)
전화 : 665-4612

입주하셔서 아기 보아주실분 (4살, 1살)
전화 : 447-1460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보아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24시간(월 9:00~토 7:00까지)도 가능하며 저희가 데리고오며 데려다 드립니다. 전화 : 651-5388 Mrs.채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여권

여권번호 : MB-137650
성 명 : 이 순자
연락처 : 742-1281 (Mrs. Lee)

매매

(1)건물(Bloor & Christie) $159,000
(2)Coin Laundry & Building $159,000
(3)Variety Store: 주매상 $8,000(스카브로)
(4)Variety Store: 주매상 $4,000+Video(Hamilton)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아스킹 : $150,000. 14%. 5Years.
커다란 파킹장을 구비한 모퉁이의 2층 벽조건물
4 Apt. 2 Stores.
년수입(건물에서) : $24,500. 주매상 : $4,000(Stores)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Realtor.

Fiat 128 급매. $1,000
Certified. Gas 절약형.
전화 : 762-3247, 533-2364 (Mr. 유)

여자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스킹 $15,000+스탁 2층에 2베드룸 있음.
전화 : 536-6250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Convenience Store for Sale. (Jane & Bloor)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5,000+Stock (361 Windermere Av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주매상 :$7,000
리스 : 2년반+옵션5년. 아스킹 : $70,000+스탁
263 Dunn Ave. Toronto (내방바람)

Store Equipment for Sale
One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 (30 Lb.)
& 기타. 전화: 746-0107(오후8시 이후) 1-727-5902

4 Door, Walk-in-Cooler and Water
Cooling System Air Conditioner팝니다.
전화 : 233-2195(B), 233-0732(R)

Variety Store for Sale
주매상: $4,000~$4,500 Extra 수입: $1,000
아스킹: $45,000+Stock 전화 : 1-525-2115(해밀톤 Mr.Kim)

Building & Snack Bar Business for Sale
Asking: $95,000. Down: $25,000 1st mortgage
at 13%. Weekly Turnover : $3,000
(Queen St. W. & East of Dufferin)
Call.Olga Krawec 769-1723
Glen Park Real Estate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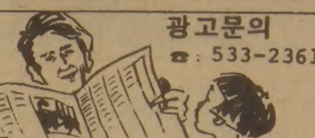
Fish & Chips for Sale
주 5일 영업.(Mon.-Fri.: 10:00a.m.-4:00p.m.)
주매상 : $4,000 아스킹 : $179,000 전화 : 759-4761 (Vaso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적당한 가격으로 팔 예정.
전화 : 531-5005(R) 531-1023(B) (Yoly)

(1)시간 짧은 Driving Hambe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5년옵션.
(2)주매상: $6,000. 렌트: $1,800. 리스: 1989+5년옵션.
Mrs. Woo. 전화 : 741-9170(B). 851-4717(R)
A.E.LEPAGE(Ontario)Ltd. Realtor.

Store Equipment for Sale
Dairy Box 1, 후리저(컴프레샤 포함)
전화 : 844-5719

구독신청 월~토
☎ : 533-236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방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방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